

## 진화론의 계보와 그 영향

신연재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 <요약>

1859년 「종의 기원」이 발간된 이후 다윈의 진화론은 각종 공간물의 타이틀을 장식하면서 그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켜 왔다. 이런 시도가 창조론자들은 물론 세속적 합리주의자들에게까지 확산될 만큼, 다윈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구는 그를 이용하려는 욕구와 함께 사실상 현대사상의 공통 주제가 되어왔던 것이다. 특히 정치사상에 대한 진화론의 영향을 긍정하는 정치적 자연주의가 근자에 이르러 부활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논자들은 아직도 진화론적 정치사상을 불신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동향에 주목하여 진화론이 정치사상에 미친 영향의 형태와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목적이 그러하므로 이글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2,3장에서는 다윈적 진화론의 토대가 된 진화론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진화론의 근대적 완성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다윈의 이론적 특성을 그 핵심 구성요소인 자연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각종 사상에 영향을 준 형태와 그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 Historical Evolution and Influence of Darwinism

Yeon-Jae Shi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influence of Darwinism. This study, especially, analyzes the types and validities of Darwinian influence on political ideolog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Darwinism has influence upon various political ideologies, i.e., liberalism, nationalism, imperialism, Nazism, anarchism. But, this does not prove that Darwinists are social Darwinists.

## I. 머리말

19 세기는 다수의 신사상이 등장하여 과거와의 단절이 난무하던 시대로 특징지워진다. 즉, 기존 사상들에 비판적인 사상들이 등장하여 전례 없는 경쟁을 벌인 결과로 구사상들이 파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신사상이 파괴 아닌 건설의 도구로 작용하는 과정에서<sup>1)</sup> <진화>가 정치사회사상의 핵심 주제로 부각되어, 다윈 류의 진화론이 당대의 사상은 물론 후대의 그것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1859년 「종의 기원」이 발간된 이후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그 타당성을 들러싼 논쟁을 가열시켜 왔고, 각종 공간물의 타이틀을 장식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가 창조론자들은 물론 세속적 합리주의자들에게까지 확산될 만큼, 다윈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구는 그를 이용하려는 욕구와 함께 현대사상의 공통 주제가 되어왔던 것이다. 특히 정치사상에 대한 진화론의 영향을 긍정하는 정치적 자연주의가 근자에 이르러 부활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논자들은 아직도 진화론적 정치사상을 불신하고 있다.<sup>2)</sup> 이 글은 그러한 동향에 주목하여 진화론이 정치사회사상에 미친 영향의 형태와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목적이 그러하므로 이글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2, 3장에서는 다원적 진화론의 토대가 된 진화론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진화론의 근대적 완성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다윈의 이론적 특성을 그 핵심 구성요소인 자연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각종 사상에 영향을 준 형태와 그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 II. 고대 및 중세 : 형이상학적 진화론

진화론이 과학적 체계를 갖춘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의 일이지만, 그 형이상학적 기원은 고대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 각종 사물과 신의 진화에 관한 막연한 사상이,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진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sup>3)</sup> 유교, 도교, 불교의 교리에 진화론적 사고가 개재되어 있었던가 하면, 그리스의 경우 진화 관념은 소크라테스 이전으로 소급된다. 특히 타レス 류의 자연철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을 논하는 과정에서 진화론적 사고와 반진화론적 사고로 대립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이 사랑과 미움에 의하여 변화되는 네 요소-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됐으며 생물중 생존에 적합한 것만이 보존된다고 함으로써 근대 진화론의 <적자생존> 관념에 가까운 합축을 제시했다. 데모크리토스 시대에는 사회 및 문화의 진보가 진화론적 시각에서 설명되기도 했다. 태초의 인간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여 사회

1) John M. Merz, *A History of European Thought in the Nineteenth Century*, Vol.1(New York : Dover, 1965), pp.80-82.

2) 진화론은 대체로 19세기 말에 정설로 굳어졌다. 1890년대부터 멘델(Mendel), 드브리스(de Vries), 베잇슨(Bateson) 등이 다윈류의 진화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래, 1920년대 이후로는 반론이 거세져 진화의 원인에 관한 논쟁이 거듭되는가 하면, 광범위한 연구로 보완된 진화론-예컨대 neo-Darwinism-이 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G. S. Carter, "Darwinism,"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Vol.2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73), pp.304-305 참조. 진화론적 정치사상의 타당성을 들러싼 최근의 논쟁에 관해서는 Larry Arnhart, "New Darwinian Naturalism in Political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9, No.2 (June 1995) ; Niles Eldredge, *Reinventing Darwin : The Great Debate at the High Table*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95)를 참조할 것.

3) Herbert Butterfield, *The Origins of Modern Science, 1300-1800* (New York : Macmillan, 1961), pp.223-224.

를 구성했으며, 이로써 기술과 조직 및 예술을 발전시켜 문명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었다. 반진화론적 사고의 뿌리 또한 깊어서, 오르피교(Cult of Orpheus)와 피타고라스 학파는 영혼 불멸을 설파했고, 엘레아 학파-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존재가 영원히 불변불멸한다고 하면서 일체의 생성과 소멸을 부정했다. 그러나 관심의 촛점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지는 것과 동시에 플라톤 류의 관념론이 차츰 탈레스 류의 유물론을 대치하면서, 진화론적 사고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된다. 플라톤은 생물학이론을 사회 변동 연구에 적용하여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고 <정치유기체>(body politic)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sup>4)</sup> 그러나 그는, 인간의 감각이 사물의 형태를 불완전하게 인지하므로 완전히 현실적인 것이 못된다는 전제 위에서 현실 세계는 형태 무변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사고를 유기체에 적용하면 결국 반진화론이 재생산될 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도 진화론의 발전을 억제한 또 하나의 주역이었다. 그는 생물학과 <자연계단>(scala naturae) 개념의 창시자로서 진화론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목적론적 형상(eidos)·질료(hyle) 개념으로 진화론의 발전을 저해했던 것이다. 그의 자연 계단 개념에 의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속적 계열로 배치될 수 있다. 즉,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무생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단순한 체제에서 복잡한 체제로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이 일련의 발전 과정은 <완성의 원리>(entelekhia)에 의해서 지배되며, 이 원리의 내부에는 목적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연은 점진적이며 지속적이고 목적론적인 변화의 원리를 내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은 자체의 설계와 사고에 따라 건설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최선의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엠페도클레스류의 진화론에 쇄기를 박았다. 한편 모든 사물이 운동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 고유의 성격을 보유한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그의 자연 관념은 자연의 변화 가능성은 봉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sup>5)</sup>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용이라면, 이 점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진화론의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물체의 <적응> 현상이 생존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함으로써, 근대 생물학에 이르러 보편화된 자연적 적용의 가능성을 제거해 버렸다.<sup>6)</sup>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처럼 진화론적 일면을 보여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진화론적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서 향후 약 2,000여 년간 진화론 연구에 재갈을 물렸다. 물론 양인 사후에도 그리스로마 시대의 몇몇 사상가들-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등-이 간혹 진화론의 부활을 시도하였지만, 그들의 <순환사관>은 무한한 변화 내지 진보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근대의 진화론과 직접 연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중세에 접어들면 이런 사정이 더욱 악화된다. 기독교의 <창조설>이 중세 유럽사회를 지배하면서 진화론은 더 더욱 설 자리를 잃게된 것이다. 창조설은 우주가 신의 설계(design)에 따라 인간 중심의 서계제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신만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잡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우주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면 무목적적이며 기계적인 자연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논자들 중에는 중세 기독교의 정치사회사상을 지배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이 흔히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윈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중세의 기독교가 진화론 연구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sup>7)</sup>

4) Walter M. Simon, "Herbert Spencer and the Social Orga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21 (1960), p. 294.

5) Thomas A. Goudge, "Evolutionism", in Philip P. Wiener (ed.),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Vol.2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78), p.176

6) 박상운, 「진화」(전파과학사, 1984), p. 24

7) K. E. Bock, "Theories of Progress and Evolution", in Cahnman & Boskoff (ed.), *Sociology and History* (New York : Free Press, 1964), pp.24-25

그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변화하는 사물의 속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여 자연으로부터 역사를 유추하는 18~19 세기의 일부 사관에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역사는 규정된 단계를 준수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했음을 들고있다. 그러나 그에게 역사의 단계를 규정하는 것은 신이며, 변화의 최종 목표는 신국으로 정해져 있었다. 자연 과정에서 신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었던 한, 중세의 기독교는 진화론의 심화와 양립할 수 없었다.

### III. 근대 : 과학적 진화론

진화론의 기원은 고대로 소급될 수 있으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반진화론적 사상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중세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더욱 침체 일로를 길게된다. 따라서 근대의 진화이론이 고대 및 중세의 진화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양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진화론은 문예부흥 이후에야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활기를 되찾게 된다. 특히 자연과학의 로네상스라고 일컬어지는 16 세기 후반 이후 17 세기까지 진화론의 발전을 자극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나침반과 인쇄술 및 포의 발명,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지동설,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 라메트리(La Mettrie)의 인간기계론, 뉴튼의 인과론적 자연관 등이 그것이었다. 17 세기의 과학혁명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 가능했는데, 이후 자연과학은 급속히 진전을 이루어 식자총에 과학주의가 만연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굿지(Goudge)는 이 시기 자연과학의 발전은 두 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파악한다. 그 1 단계는 물리학이 발달한 17 세기로서 기계론적 원리에 따라 물리적 우주이론을 정립한 시기이다. 뉴튼, 칸트, 데카르트 등이 자연도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기계론적 우주관이 창조설에 완강히 대립하기 시작했다. 제2 단계는 지질학과 고생물학이 발달한 시기인 바, 진화론의 부활에 필수불가결한 이론들을 확립한 시기이다.<sup>8)</sup> 그 하나는, 수천년 간에 걸친 지구 표면의 변화는 물리력이 점진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라이엘(Lyell)의 균일설이었다. 이 이론은 성경의 홍수설과 재앙설을 반박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둘은, 지구의 연령이 성경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론으로서 생물의 진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셋은, 화석은 과거에 생존했던 유기체들의 잔재라는 이론이다. 라이프니쓰(Leibniz), 뷔퐁(Buffon), 마이예(Maillet), 라이엘에 이르러 화석은 진화의 직접 증거로서 유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1. 물리학의 혁명

과학혁명의 제1 단계를 지배한 것은 사실상 물리학의 혁명이었다. 물리학의 혁명은 과학주의의 만연을 초래했고, 과학주의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현상 일체를 규율하는 보편적이며 영속적인 법칙이 존재하므로, 이를 과학과 철학의 상호 결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자연주의를 전파시켰다. 더 나아가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 세계의 본질을 과학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유물론도 자리잡게 했다. 자연주의와 유물론의 확산은 자연이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 작동 된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권위를 더해 주었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드세는, 근대국가의 출현으

8) Goudge, *art.cit.*, p.176

로 그 세력이 위축된 기독교의 권위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생물학 특히 진화론의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해 준 셈이었다. 그리하여 기계론적 세계관의 기초 위에 선 생물학은 생기론과 섭리사관을 점차 배제하면서, 생물기계론에 입각하여 진화론의 토대를 축적해 나아갈 수 있었다. 물리학이 생물학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예는 근대 사회진화론의 여명을 연 스페너(Herbert Spencer)의 진화론적 개인주의이다. 바카 경의 분석에 의하면, 그의 진화론은 물리학적 세계관-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의 법칙-의 토대 위에 생물학을 접목한 것이었다.<sup>9)</sup> 과학혁명 초기부터 근대의 사상가들이 인간사회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연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부단히 시도했던 것에서 과학혁명이 미친 영향의 광역성을 간파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과학혁명을 근대의 기점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있었다. 물리학 혁명의 내용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그것은, 자연을 인간의식에 잉태시킨 문예부흥의 바탕 위에서, 자연이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지 초자연적 권위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연주의> 관념을 인류에게 심어 주었다. 인과론적 자연관과 통일적 인성론이 보편적이며 자연적인 공동체 관념을 나아가서 인간 본성의 동일성 관념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의 법칙은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고가 팽배하게 되었다.<sup>10)</sup> 이러한 변화에 따라 17 세기 이후 자연은 종교를 대신하여 인간 사회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이성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둘째 그것은 정신과 물질의 구분을 거부하면서 세계는 오직 물질로만 구성됐다는 <유물론>을 자아냈다. 그 외연에서 흡스같은 극단론자는 이성의 작용으로 인간 정신이 자율성을 획득할 여지만을 남겨둔 채 인간의 모든 행위, 감정과 사고가 결국 물질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강조했다.<sup>11)</sup> 뉴튼 류의 과학주의가 록크 류의 경험주의와 만나면, 물질적인 것이 인식의 원천이자 행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디드로(Diderot)에 이르면 기계론적 물질론을 벗어나 자연의 변증법적 발전 원리에 입각한 진화론적 변화를 주장하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과 자연의 구성 요소나 작동 원리가 모두 물질이며, 그러한 물질세계의 본질을 과학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근대의 일부 사상가들은 이런 변화를 가져 온 요인이 인간의 이성과 능력이라는 인식 아래, 인간의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에 신뢰를 보내는 한편, 인간사회와 자연에 벤더스러운 간섭을 행해 온 신의 섭리를 유보시켰다.<sup>12)</sup> 그들에게 이성은 자연과 사회에 두루 통용되는 작동 원리였다. 그러므로 이성을 파악하면 자연과 사회의 법칙을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는 관념이 유도되었다. 이 결과 자연과 사회 어디에서나 신이 설 자리는 없어진 셈이었으나, 계몽주의자들은 신이 자연과 사회의 궁극적 주재자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더구나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이 유럽 전역에 공포와 혼란을 확산시켜, 낭만주의가 합리주의에 비하여 상승세를 타게 된다.<sup>13)</sup> 낭만주의는 자연의 진화에 관심의

9) Ernest Barker, *Political Thought in England from Spencer to Present* (London : Williams & Norgate, 1915), p. 76

10) 차하순, “계몽 사상의 계보, 1630-1930”, ‘문학과 지성’ (1973 겨울) pp.756-758

11) R. N. Berk,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London : Dent, 1977), p.133.

12)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그리고 순탄하게 진행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문예부흥기와 계몽주의 시대 사이의 각종 인습적 편견을 제거하고 서서히 성숙된 것이었다. 자연주의와 유물론의 확산이 속세사의 가치를 경시한 기독교의 내세주의를, 고대 문명을 동경하던 중세의 사조를,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를 무시하던 풍조를 부단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합리주의의 대우가 가능했다. W. Warren Wagar, *Good Tidings : The Belief in Progress from Darwin to Marcuse*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1972), pp.14-15.

13) 다시 말하자면, 낭만주의는 자연 현상의 이성적인 면에 집착하는 계몽주의에 반대하여 자연 현상

초점을 돌리고 기계론적 세계관 대신 유기체론적 세계관을 내세운 결과, 근대 진화론 전통의 일각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자연주의, 유물론, 합리주의의 영향과 더불어 인류의 복지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됨으로써 18세기 초엽부터 <진보 사상>이 확산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18-19세기에 보편화된 진보 사상은 과학혁명과 서구의 역사적 여건 변화의 산물이었다. 이렇듯 문예부흥 이후의 서구 역사를 발전적 시각에서 파악한 사상가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찬미하고 그 능력을 신뢰했고, 이 바탕 위에서 인간들이 가꾸어 온 역사의 진보를 의심치 않았다.

근대의 정치사회사상중에서 과학혁명의 영향을 가장 크게 흡수하여 사회과학적 진화론의 토대를 육성한 은상은 계몽주의와 실증주의였다. 이들의 영향 때문에도 근대 서구에서는 형이상학적 진화론이 사회를 설명하는 주요 모델로 작용해 왔다. 그 예로 백과전서파는 인간의 목적론적 행위가 사회 변화에 미칠 가능성을 탐색했는데, 특히 볼테르와 몽테스키외는 제도의 점진적 변화에 주목했다. 공상적 사회주의의 개량주의, 중농주의학파의 경제발전 사상, 고전 경제학파의 경제질서 관념 등도 이 계열에 속했다. 19 세기, 산업화의 급진전에 직면하여 계몽사상에 내포된 과학주의와 진보 관념을 철저히 이어받은 것이 콩트 류의 실증주의였다. 따라서 실증주의만큼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의 원리로서 진보 관념을 신뢰한 사조도 없었다. 콩트는 산업혁명 이후 구조의 혁기를 맞아 안정과 진보의 두 목표를 추구되면서 그 방편으로 실증주의를 선택하면서, 기존의 과학주의에 산업주의를 새로 추가하여 진화적 진보와 세계의 통합을 기대했던 것이다.<sup>14)</sup> 그러나 형이상학적 진화론을 절정에 올려놓은 것은 독일낭만주의자들이었다. 그들- 칸트, 헤더(Herder), 피히터, 피테, 헤겔 등-은 주로 역사의 연속성, 진보의 완벽성, 형이상학의 효용을 강조하면서 인간의지를 신격화하는 테 주력했다. 특히 헤겔은 정신의 진화를, 헤더는 언어로 인간과 동물의 발전 단계의 차이를 설명했다.

## 2. 생물학의 혁명

과학혁명의 제2 단계는 생물학의 혁명으로서 18 세기 생물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왕의 물리학 발전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물론 18 세기 이전에도 생물학의 팔목할 만한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비(Harvey)의 경우, 생리 현상을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여 기계론적 생물학의 기초를 닦아 놓았으나, 그것은 단속적인 소수의 예에 속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물리학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정치사회사상 분야에서도 훌륭 들어가 창조설의 권위를 잠식함으로써, 생물학을 와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지질학의 균일설은 기독교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고, 생물학 내부에서도 연구의 전문화가 속속 이루어져 다양한 업적이 상당한 규모로 축적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 세기의 생물학자들은 플라톤식의 종 관념-우주는 최저 형태로부터 최고 형태까지의 종이 고정 불변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부학 연구를 심화시켰으며 유기체의 다양성, 발생, 성장의 연구에 주력했다. 비교해부학, 분류학, 발생학, 유전학, 고생물학, 화석학의 발전은 이러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생물학 각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마침내 <유기체론적 세계관>-자연은 외적 법칙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력에 따라 기능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도입된 기계론적 세계관과 경쟁하기에 이

의 감정적인 면과 근본적인 힘을 탐구했을 뿐, 자연주의의 전통은 여전히 계승했던 것이다. Morse Peckham, *The Triumph of Romaniticism* (Columbia :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1970)

14) Irving M. Zeitlin, *Ideology and Development of Sociological Theory* (New Delhi : Prentice-Hall of India, 1969), pp.70-74.

른다. 18 세기 생물학은 이렇게 연구의 다원화, 전문화, 자율화를 진척시키면서 진화론의 성숙을 도왔다. 이러한 발전이 자연 분류 체계의 완성을, 생물의 자연적 유연 관계의 부각을 가져와 생물학적 진화 관념의 다리를 놓았다.

근대 생물학의 토대는 먼저 분류학에 의하여 구축되었다. 종 개념의 확립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꼈던 분류학자들은 종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진화론의 문을 열었다. 보앵(Bauhin, 1560-1624)은 「식물일람표」에서 이명법 체계를 세웠고, 레이(Ray, 1628-1705)는 「식물학」에서 종의 개념을 제시하고 종의 변화를 인정했으나 그 창조자는 신이라고 함으로써 창조설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린네(Linne, 1707-1778)에 이르러 이명법이 완성되는데, 그는 종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창조설에 사로잡혀 종의 불변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다. 지속성의 원리는 라이프니쓰(Leibniz, 1646-1716)의 <존재의 사슬> 개념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계단> 개념이 그 개념의 모델이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종의 변화를 인정했다. 그러나 종의 변화를 인정하되,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 대신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변화한다는 연속성의 원리를 제시했다.<sup>15)</sup> 이로써 생물학은 생명체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론적 시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어 모뻬르뛰(Maupertuis)가 종의 변화와 분화,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유기체의 발전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하여 새로운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되고, 이 새로운 형질로 유기체가 선조보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하면 새로운 종이 형성된다고 한다. 의도와 목적이 개입되지 않은 이 과정이 거듭되면 다양한 형태의 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속성의 원리도 생물학계 일각의 거센 반대를 피할 수는 없었다. 반대파는 주로 기독교의 창조설을 여전히 신봉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계단 관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선두 주자가 뷔퐁(Buffon, 1707-1788)이었다. 그는 자연 과정 전체를 종합하여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창조 행위가 생물체의 생성을 설명하는 필수적 요인이 아니며, 환경의 직접적 영향으로 종이 변화할 가능성을 주장했고, 유전을 통해 적자의 보전과 부적자의 제거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한 점 등을 보면, 진화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종 불변설, 획득형질의 유전, 대격변설을 주장한 점에서 그는 진화론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역작용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이미 지성계의 변화 조짐이 잉태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주를 지속적 역사 과정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sup>16)</sup>

라마르크(Lamarck)는 진화론의 발전을 저해한 종불변설과 그 반대의 입장에 선 종변이설 사이에서 절충을 시도했다. 그의 기본 시각은, 좋은 고정 불변의 것이나 이미 예정된 단계에 따라 목적론적으로 변화될 잠재 요인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선 진화론과 이신론(Deism)의 절충을 시도하면서, 지속적 <존재의 사슬>을 부인하는 대신 자연의 도약을 신뢰했다. 이로부터 그의 진화론이 구체화되었던 바, 그는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각각의 변화가 생물의 생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생물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자신의 욕구와 결핍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용불용에 따라 기관의 확대 또는 축소 현상이 발생한다는 용불용설을 주장했다. 유기체의 형질은 이러한 욕구와 결핍을 충족시키면서 개발되

15) Arthur 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61), pp.144-182.

16) John C. Green, *The Death of Adam* (Ames: Iowa State Univ. Press, 1959), pp.138-154, 169-173. 반면, 큐비어(Cuvier)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종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종불변설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좋은 신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창조될 뿐이며, 천재지변만이 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외적 요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진화론의 발전에 암운을 드리웠다.

고, 이렇게 획득된 형질은 후대에 계승된다는 <획득형질의 유전> 또한 그의 이론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그는 유기체의 기능과 형태가 변화하더라도, 이 변화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저급-단순한 것-으로부터 고급-복합적인 것-을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목 적론적인 과정이라고 파악했다.<sup>17)</sup>

생물학적 진화론의 발전에는 철학의 영향도 가세했다. 생명력과 정신의 형성 원리를 중시한 로비네(Robinet)는 세계야말로 생명체라는 시각으로 진화론에 기여했다. 그에 의하면, 모든 것의 구성 요소인 원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보유한 것으로서, 모든 변이의 근저에는 하나의 원형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유기체는 직선상에 배열될 수 있으며 존재의 사슬은 지속적인 것이고, 환경은 동식물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보네(Bonnet)는 모든 존재의 최종 구성 단위가 생명을 보유하되 분해는 불가능하며 그 자체가 영혼임을 역설했다. 그는 로비네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직선적 시각에서 파악했으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한다는 식으로 시각을 더 구체화시켰다. 게다가 직선적 진화의 과정에서 각 단계의 차이가 미세하므로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선성설-preformation-을 신뢰하고 천변지 이설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결합을 드러냈다. 18 세기 생물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선택 개념이 다윈의 그것만큼이나 정확하거나 또는 그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형태로나마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원적 진화론의 기초는 이미 18 세기에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짧지도 순탄하지도 않았다. 보머(Baumer)의 지적처럼, 다윈의 진화론은 18 세기까지 연绵히 축적된 혁명적 사고의 연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지적 혁명은 실제로 오래 동안 이어져 온 사상과 과학을 종합하고 전파한 것으로서,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은 진화적인 것이었으나 효과는 혁명적인 것이었다.<sup>18)</sup>

#### IV. 다윈의 진화론

근대 서구에서는 문예부흥 이래 자연주의, 유물론, 합리주의, 진보사관, 실증주의, 형이상학적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론 등이 중첩된 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되어 왔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들의 축적에 토대를 두고 출발한다. 이런 평가에 근거하여 그의 이론적 독창성을 부인하는 논자들도 있다.<sup>19)</sup> 물론 그의 이론이 순수히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대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의 진화론이 명멸했고, 다원적 진화론의 핵심 요소인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변이 개념의 유사 형태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진화론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evolutionism> 대신 굳이 <Darwinism>을 사용한 정도로, 그를 높게 평가하는

17) Bruce Wilshire, *Romanticism and Evolution*(New York : G. P. Putnam's Sons, 1968), pp.214-230. 다른 한편으로 그는 생명의 자연발생설을 지지했던 반면, 천변지이설을 거부하기도 했다.

18) Franklin L. Baumer, *Intellectual Movements in Modern European History* (London : Macmillan, 1965), p.1 ; Richard D. Altick, *Victorian People and Ideas* (London : J. M. Dent & Sons, 1974), p.222 ; Gertrude Himmelfarb, *Darwin and the Darwinian Revolution* (New York : Anchor Books, 1962). 그리고 멜더스로부터 수용한 생존경쟁 관념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윈 이전에 다원이즘의 구성 요소들이 미완성의 형태로나마 대부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Butterfield, op.cit., p.233 참조. 그러나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그의 진화론에서 가장 독창적인 요소는 <자연선택>이다.

19) 그 예로 Carlton J. H. Hayes, *A Generation of Materialism, 1871-1900*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41), pp.9-10 ; Anthony Leeds, "Darwinian and 'Darwinian' Evolutionism in the Stud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omas F. Glick (ed.), *Comparative Reception of Darwinism* (Austin : Univ. of Texas Press, 1972), p.443을 참조할 것.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로서는, 다윈이 기왕의 진화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화의 방식과 증거에 관한 체계적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진화론을 처음으로 검증 가능한 과학이론으로 확립시켰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먼저 꼽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목적론을 배제하고 모든 설명 요소를 인과관계에 따라 연결시켜 진화론 체계에 통일성을 부여하되 단순화시켰다는 것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그의 기여이다. 그런 데다가 다윈의 진화론을 초극할 만한 업적이 이후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다윈을 진화론의 대표 주자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sup>20)</sup>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과학적 진화론을 가장 잘 집약해 놓은 것이 『종의 기원』이었다. 그러나 이 저술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종의 기원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집단인 종과 환경간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종의 형성과 변화 과정 그리고 방식이 우발적인 것이 되질서정연한 사건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진화론의 시작에서 설명한 것이다.<sup>21)</sup> 그는 과학주의의 영향 아래 이 책을 저술하면서 신종의 생성, 변이, 유지를 <원인>(why)보다는 <방식> 또는 <기제>(how)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완강히 저항하던 창조설과 목적론적 진화론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 1. 자연변이(natural variation)

다윈의 견해를 따르자면 영원한 형태의 종은 없다. 신구종의 개체는 언제 어디서나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만하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신종은 과거의 동종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며, 현존 생물의 다양성은 기존 생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다윈은 이러한 변화를 <변이>(variation)라고 지칭했고 그 단계는 개체의 변이, 아종, 변종 발생의 순서를 밟는다고 주장했다. 아종은 종의 지위에 접근했으나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형태이며, 변종은 변화의 결과이자 과거의 종과 뚜렷이 다른 것으로서 신종의 초기 형태이다. 그런데 변이는 개체의 수가 많을수록 또 널리 분포되어 있을수록 빈번히 일어난다.<sup>22)</sup> 다시 말하면, 어느 공간에 위치하더라도 큰 속에 속하는 종들이 작은 속에 속하는 종들보다 자주 변이를 일으키며, 같은 공간 내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종들이 가장 많이 변이한다는 것이다. 변종들은 신종들로 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리고 보다 큰 속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계에서는 우세한 개체들을 많이 보유한 큰 속들이 우세한 자손들을 보다 많이 남김으로써 한층 더 우세해지고 번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2. 생존경쟁(struggle for life or existence)

다윈의 생존경쟁 개념이 맬더스의 인구론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sup>23)</sup> 맬더

20) 이러한 주장들에 관해서는 M. J. S. Hodge, "England", in *Comparative Reception of Darwinism*, p. 7 ; 리차드 리키, "머리말", 찰스 다윈, 「종의 기원」(종로서적, 1987), p.7 참조.

21) George S. Carter, "Darwinism of Standard Biology",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New York : Herder & Herder, 1973), Vol.2, p.304.

22) 자연변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Charles Darwin,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London : Oxford Univ. Press, 1925), pp.7-55.

23) Darwin, *op.cit.*, p.59 ; Thomas R.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 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s of Mr.*

스는 인간사회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지만, 다윈은 생물계의 자연선택의 양적 원리를 설명하는 데 원용했다. 그렇다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맬더스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이었던가? 경쟁이 사회 진보의 원리로 자리잡아 가던 당시의 영국 상황에 비추어 일부 논자들은 다윈의 진화론, 특히 생존경쟁 관념이 자연주의의 산물이기는 커녕 사회상에 근거한 사회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그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생물학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맬더스의 영향을 받아 그 당시의 사회생활에서 생존경쟁의 중요성을 강화한 후, 이러한 사회과학적 개념을 유기체의 변이를 설명하는 생물학에 연역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sup>24)</sup> 그들은 이러한 설명에 근거를 두고, 다윈을 초기 산업자본주의의 이데올로구로 또 맬더스의 자연과학적 추종자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유일한 관심은 새로운 종을 산출하는 기제를 밝혀 내는 것일 뿐, 산업화가 빚어낸 영국의 사회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다윈의 고백을<sup>25)</sup> 전면적 허위라고 반박할 근거는 없다. 생존경쟁 관념은 맬더스가 최초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서구 정치사상의 전통적 특성이었다는 지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6)</sup> 나아가 다윈은 「종의 기원」의 골격을 어느 정도 완성한 1838년까지 「인구론」을 읽지 않았으며, 맬더스는 개인간의 생존경쟁보다는 민족간의 경쟁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종 내부에서의 개체간의 경쟁을 주로 다룬 다윈의 분석 시각과 다르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게다가 맬더스는 생존경쟁이 인류에게 공립과 해악을 초래한다는 숙명적 비판론을 펼쳤으나, 다윈은 생존경쟁에 입각한 자연선택이 생물계에서 부적자를 제거해 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이에 견주어 보면 앞에서 소개한 비판들은 다윈이론의 이데올로기성이나 비과학성을 폭로하는 것에서보다는, 그것에 관한 천박하거나 표피적인 이해가 얼마나 다윈의 이론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이해는 다윈의 이론 자체가 아닌 거기에 내포된 함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것을 산업자본주의와 결부시켜 전파함으로써 왜곡된 이해를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맬더스가 다윈의 진화론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sup>27)</sup> 그러나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자신의 생존경쟁 개념은 맬더스의 그것을 생물계 전체에 적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생존경쟁은 생물의 기하급수적 증가에서 유래된다고 한 점을 보더라도, 맬더스의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다윈의 상대적 독자성과 맬더스의 영향을 모두 인정하되, 다윈의 생존경쟁 관념에 대한 맬더스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해석에 더 무게를 실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윈은 개체의 변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이 자연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가정 아래 생존경쟁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가 말한 생존경쟁은 한 생물이 다른 생물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을 성공적으로 번식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넓고 은유적인 개

*Godwin, M. Condorcet, and Other Writers* (1826), 6판.

24) 대표적인 예로 Harris Marvin, *Cultural Materialism* (New York : Vintage Books, 1979) ;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 Beacon Press, 1964), p.84.

25) Darwin, *op. cit.*, p.3.

26) Raymond Williams, *Problems in Materialism and Culture* (London : New Left Books, 1980), p.88. 윌리암스는 흉스의 자연상태를 예로 든다.

27) 맬더스가 다윈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에 대한 반론에 관해서는 John M. Robertson, *A History of Free Thought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1929), pp.336 ; James A. Rogers, "Darwinism and Social Darwi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33, No.2 (April 1972) ; Derek Freeman, "Evolutionary Theories of Darwin and Spencer", *Current Anthropology*, Vol.15 (1974) ; 정용재, 「찰스 다윈」(민음사, 1988), pp.90-91.

념이었다. 그는 그러한 생존경쟁의 원인을 생물의 기하급수적 증가 경향에서 찾았다. 그런 경향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개체가 생겨나, 각 세대별로 생존경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물의 다산성이야말로 생존경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간주했다. 그가 주장하는 생존경쟁의 형태는 다양해서 한 개체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와 경쟁하는가 하면, 다른 종의 다른 개체와 혹은 물리적 생활 조건과 생존 경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환경과의 경쟁, 종간의 경쟁이 있기는 하되 동일 종 내부에서의 개체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며 보편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종은 동일한 생활 여건·예를 들면 같은 벽이를 필요로 하고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처할 뿐만 아니라 습성, 체질, 구조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 3.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또는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

자연선택 개념은 과연 다윈의 진화론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브로노프스키(Bronowski)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왜냐하면 「종의 기원」은 자연자원의 획득을 둘러싼 개체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개체간의 생존경쟁 때문에 결국 자연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 자연선택은 그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것도 매우 짧막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다윈이 자연의 균형을 중시했음에는<sup>28)</sup>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의 방법론적 주요 관심사가 목표가 아닌 방법이었던 것처럼, 자연의 균형보다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연선택을 그는 더 중시했다. 자연의 균형은 자연선택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연선택 개념이 그의 진화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을 수립함으로써 다윈은 독창성을 발휘하면서 근대 진화론의 정상에 올라섰고, 근대 사상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도 있었다.<sup>29)</sup> 그에게 자연변이, 생존경쟁 개념은 자연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 다윈에 의하면 각 개체의 유리한 차이와 변이를 보존하고 해로운 것을 파괴하는 것이, 또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생존경쟁에서 보존될 가능성이 클 뿐더러 그 형질이 유전되어 이들과 유사한 형질을 가진 후손들을 번식시키는 현상이 자연선택이었다. 그러므로 유용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변이들은 자연선택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여전히 화를 겪거나 아니면 결국 고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자연선택> 개념보다 스펜서의 <적자생존> 개념이 더 정확하고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종의 기원」 제5판(1869)부터 기존의 자연선택 개념 외에 <적자생존> 개념을 도입하여 양자를 병용했다. <자연선택 또는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을 종의 기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28) J. Bronowski, "Introduction", in Michael Banton (ed.), *op.cit.*, p.x. 진화론 중에서 특히 다윈의 독창성을 빛내주는 것은 자연선택이론이다. 종의 <변이>에 관한 이론은 이미 18세기 중엽에 나타나 1840년대에는 해부학, 고생물학, 지질학의 발달에 힘입어 과학적인 가설로 확립되었다. <생존 경쟁> 관념 또한 멜더스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앞 절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진화론 중에서 다윈만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자연선택이론 뿐이다. 이에 관해서는 Baumer, *op.cit.* p.118 참조. <자연선택>이 「종의 기원」 마지막 장에서 짧막하게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자연선택에 할애된 원고의 분량이 아니라 변이 과정에서의 역할인데, 다윈은 자연선택이 변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의 자연선택에 관한 설명은 Darwin, *op.cit.*, ch.4 참조.

29) 1859년 이전의 진화론은 진화의 증거와 방식에 관한 체계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한 것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다. 다윈은 진화론을 최초로 검증 가능한 이론으로 확립했고, 그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 Goudge, *art.cit.*, pp.179-180 ; Basil Wiley, "Darwin's Place in the History of Thought," Michael Banton (ed.), *Darwinism and the Study of Society* (London : Tavistock, 1961), p.2.

그러나 다윈 나름대로는 충분한 유용성을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생존 개념의 도입은 적지 않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다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자연선택이론을 개발했던 월러스(Wallace)는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이 원래 스펜서의 적자생존 개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적절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월러스의 견해를 따르자면, 진화의 과정은 적자의 생존보다는 부적자의 제거 과정인데도 다윈은 주로 적자의 생존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이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헉슬리(Huxley)의 경우 <다윈의 불독>(bulldog of Darwin)을 자처하며 평생 다윈의 진화론 전파에 주력했으나, 다윈이 적자생존을 자연선택의 동의어로 간주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헉슬리의 판단으로는 도덕이 작용하는 인간 사회와 도덕이 작용하지 않는 자연계에 적용되는 법칙이 달라야 함에도, 적자생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생물진화이론이 사회진화사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연선택>은 환경이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환경이 선택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적자생존>은 유기체의 내적 속성을 중시하여 그 속성이 생존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개념을 병용할 경우 생물학에서는 그런 차이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sup>30)</sup>

다윈은, 어떤 종의 개체들에게 유리하고도 조그만 변화는 그들을 변화된 여건에 더 잘 적응케 함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 주며, 유리한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자연선택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부적자의 제거보다는 적자의 생존을 강조하는 동시에 선택의 주체가 자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리한 변화의 원천은 매일 매시간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변이들이다. 자연은 이것들중 오랜 시간에 걸쳐, 기회(chance)가 주어질 때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보존하고 축적토록 함으로써 각 생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 여건을 개선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윈은 그런 자연선택에 작용하는 환경 요인이 여러 가지라고 주장했다. 개체의 수, 격리, 거주 지역의 넓이가 그것이다. 다윈은 우연을 문화의 요인으로 내세워 진화론의 전통에서 목적론과 창조설을 약화시켰지만, 여기서 우연이 의미하는 바는 변이의 원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으나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점 때문에 그는 진화의 원인보다는 그 방식의 천착에 더욱 집착했다. 이러한 설명은, 자연에서 우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란 없으며 모든 현상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 엄밀히 규정된다는 그의 가설과 합쳐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물계의 각 종이 개체 수를 늘려 나간다면, 자연이 부양할 수 있는 이상으로 번식을 거듭하여, 결국 자연의 균형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다윈은, 각 종 내부에서 개량 신종이 원종을 멸망시킬 물론 동시대의 중간종들을 멸망시킴으로써 매 단계마다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킨다고 설명한다.<sup>31)</sup> 자연선택은 지속적 변이로 유리한 형질을 축적한 종이

30) Thomas H. Huxley, *Evolution and Ethics* (London : Macmillan, 1894), p.59 ; Rogers, *art.cit.*, p.278 ; David Wells, "Evolution and a Free Society : Spencer, Kropotkin and Popper", *Politics*, Vol.23, No 1 (May 1988), pp.52-53. <자연도태>는 부적자의 제거에, <자연선택>은 적자의 생존에 너비증율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선택은, 부적자의 제거나 적자의 생존이 모두 자연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포괄적이고 충립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 글에서는 natural selection을 자연선택으로 표기한다. 다만, 자연선택이 진화의 핵심 기제로서 생물체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지배적 요인이라고 간주할 경우 자연환경만이 진화를 규정한다는 오해를 자아낼 수 있다. 진화는 자연의 선택과 함께 유기체의 내적 속성 변화에 의한 적응 능력으로부터도 영향받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31) Darwin, *op.cit.*, pp.73-118. 카터는 이상의 설명에 비추어 다윈이즘의 틀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생물의 재생산력은 자신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너크다. 둘째, 각 세대별로 생존경쟁이 일어난다. 셋째, 각종 내부에서 변이가 일어나며 이는 유전된다. 자그마한 변이가 자주 일어나며, 이것이 더 중요하다. 넷째,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변종이 잔존하여 자손을 너번식시킨다. 다섯째, 유리한 형질

환경에 더 잘 적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자연질서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에게 진화는 자연선택에 의하여 창출된 유리한 변이의 결과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렇듯 자연선택이 생물 진화의 배타적 수단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던 다윈은 만년에 이를수록 견해를 조금씩 수정했다. 과거에 경시했던 요인들의 재평가를 통해 자연선택이 여전히 진화의 지배적 수단이되 배타적 수단은 아니라고 한 것이 그러한 변화를 말해준다. 그리하여 그는 <용불용선>, <획득형질의 유전>, 그리고 <환경의 직접적 영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화의 보조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신자연주의자 및 신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획득형질의 유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후의 생물학자들이 유전학의 발전에 맞추어 그의 이론을 수정하는 데 큰 장애가 없었으며, 그리하여 그의 자연선택이론은 생물학적 진화론의 원형으로 잔존할 수 있었다.<sup>32)</sup> 다윈의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의 종류는 다양했으나 핵심 문제는 거의 동일하다. 과연 자연선택은 각종 생명체와 사회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연선택의 범주를 초월하는 생물 및 사회 현상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 기체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진화론이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거의 없고 적용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는 생물유기체가 적응과정에서 완벽을 향해 접근하는 과정을 지적했을 뿐이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선택이 절대적 완벽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종의 기원」 중 <체제가 진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정도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거기서 그는 자연선택을 통한 생존여건의 개선이 수많은 생물들의 체제에 점진적 진보를 초래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폰 베어(Von Baer)의 개념이 가장 보편적이고 우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개념을 인용한다. 즉, 같은 생물의 여러 부분의 분화 정도 및 기능들을 위한 특화 또는 생리적 분업의 완성이 그것이었다. 자연선택은 분명히 생존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러나 생물기관의 특화는 기관 기능의 발전을 초래하기는 하나, 동시에 기관이 불필요한 성장에 적응할 수도 있으므로 체제의 퇴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는 자연계만을 놓고 보더라도 자연선택이 진보는 물론 뒤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 그의 관심은 철저히 자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인간의 계보」(1871) 발간을 계기로 자신의 진화론을 조심스럽게 사회과학적 문제들-도덕, 진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저술에서 인간도 진화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 왔다는 것,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도 변이, 변이의 유전, 생존경쟁, 선택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인간은 도덕과 지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단서를 붙였다. 특히 인간과 동물의 구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구분은 정

을 축적한 종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잘 석용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Carter, *art.cit.*, p.304.

32) Stephen J. Gould, "Evolutionary Biology of Constraint", *Daedalus* (Spring 1980), pp.39-40. 20 세기 중반 이후의 통합이론(synthetic theory)은 진화론적 변화를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점에서 다윈의 이론과 동일하나, 과도한 단순화를 회피하고 진화의 상이한 차원과 비율, 선택 압력의 상이한 정도 등을 세분화한 점에서는 상이하다. 통합이론가들은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 생존이 아니라 상이한 재생산이므로 생존경쟁, 적자생존, 부적자의 제거는 선택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닌 그 특수한 경우로 파악한다. Richard Dawkins, *River Out of Eden : A Darwinian View of Life* (New York : Basic Books, 1995), p.3 ; Eldredge, *op.cit.*, Daniel C. Dennett, *Darwin's Dangerous Idea : Evolution and the Meaning of Life*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5). 그러나 생물체 대부분의 생성 및 변화가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생겨나 복잡해졌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매들라인 내쉬, 김종범역, "진화의 대폭발," 「과학사상」 18호(1996 가을), pp.161-179 참조. 원전은 Madeline Nash, "Evolution's Big Bang," *Time* (December 4, 1995).

도의 문제일 뿐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진화론의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지식 및 도덕 능력이 생계 수단의 획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때 육체의 진화를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이때부터 진화가 인류의 정신과 도덕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선택의 작용으로 도덕의 표준이 상승하여 재능 있는 인간의 수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사회는 문명상태에 도달하는데, 단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명의 대두와 함께 자연선택은 진화의 종속변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선진문명국의 선진 도덕은 다른 종족을 대체하거나 절멸시키는 것을 금하며, 오히려 약소종족의 보호를 요구한다는 것이다.<sup>33)</sup> 또한 문명 상태에서도 자연선택은 여전히 인간의 육체와 정신 및 도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선택이나 환경 및 획득형질의 유전 효과가 사회 진보의 불가피성이나 방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진화는 반드시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보 또한 불변의 법칙이 아니며, 오히려 진화는 사회의 퇴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나아가서 사회의 진화 과정에 진보의 내적 경향이 잠재해 있다는 목적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거부한다. 그가 빅토리아 시대의 낙관주의 및 인도주의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의 권위를 의식하여, 모든 부류의 진보는 당시의 환경에 달린 문제이며 자연선택은 일시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자연주의적 입장을 부분적으로 후퇴시킴으로써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생존경쟁-자연선택 기제를 관철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V. 진화론의 영향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계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인간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 이에 관하여 호프스태터(Hofstadter)는, 다윈의 진화론은 본래 이중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들을 지지할 수 있는 중립적인 도구라고 주장한다.<sup>34)</sup> 예컨대 그것은 정치 영역에도 다양하게 투사되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국가주의와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평화주의와 군사주의를 동시에 합리화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작용했다. 다윈이 진화론의 폭풍을 몰고 온 이후 상당수의 사회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온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사회진화론이 다양한 형태로 분열되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화론은 그만큼 신축성이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이 사회 현상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방하는 데까지 그것을 동원한 결과로 문제와 결함도 드러나게 되었다.

### 1. 개인주의

사회진화론은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학적 진화를 동일시하면서, 진화론을 정치사회사상에 접목시켜 사회를 진화론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자연의 기본적 요구

33) 다윈의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는 Robert J. McShea, *Morality and Human Nature : A New Route to Ethical Theory* (Philadelphia : Temple Univ. Press, 1990) ; James Q. Wilson, "The Moral Sens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7 (1993), pp.1-11.

34)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Boston : Beacon Press, 1941), p.201.

35) D. P. Crook, *Benjamin Kidd : Portrait of a Social Darwinist*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가 사회 내에서 변형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제거되거나 영원히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그것이 진화론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한다. 요컨대 사회진화론은 존재의 사슬을 토대로 인간을 다른 생물과 같은 차원에서 파악한 진화론의 영향 아래, 생물과 자연의 속성을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원용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회진화론자들은 진화의 기제 아닌 진화 현상을 수용하는 데 주력할 뿐이었다. 이 결과 사회진화론이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흔히 간과되곤 했다.<sup>36)</sup> 그리하여 사회진화론 계열에 마치 단일화된 정형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원본사상-진화론-과 사본사상-사회진화론-간에 그리고 사본사상간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어떤 차이를 갖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내부에서 개인을 생존경쟁의 단위로 한 채 개인 자유의 극대화와 국가 간섭의 극소화를 역설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대내적 경쟁과 및 자유의 일부 유보를 통하여 국가의 간섭 확대를 요구한 사회진화론의 속성이 모든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정당화한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나 무정부주의를 정당화한 사회진화론의 속성이 시종일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평화주의와 군사주의를 각각 응호한 사회진화론의 속성이 총체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사회진화론이 어느 사상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속성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하여 그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그 전파 과정에서 굴절이 있기는 했지만 여타 사회진화론의 생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마치 사회진화론의 전부인 양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의 진화론은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진화론의 다양한 형태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야 마땅하다. 그의 사회진화론은 극단적 개인주의를 합리화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진화론과 구별된다. 그는 인간사회와 자연세계를 동일시하면서 생물학적 원리로 사회의 진화와 진보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는 자연의 속성이 인간사회에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포착했는가? 그것은, 자연은 경쟁의 장이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제거하기 마련이며, 사회윤리는 자연을 추종하여 강자 아닌 약자를 비난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러한 자연주의적 시각을 경쟁이 일상화되어 가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사회에 적용하여, 개인간의 경제적 경쟁을 생존경쟁으로 파악했다. 그에 의하면 사회는 원자화된 개인들로 구성되어 경쟁적 진화 과정을 통하여 진보하는 것이다. 생존경쟁은 자연계에 진화적 변화를 초래하고, 인간사회에서는 자유를 향한 진보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생존경쟁을 사회 운영의 기초 원리로 파악했던 한, 자연선택은 사회에서도 관철되어 사회적 약자층-빈자, 무능력자, 병자, 나약자 등-은 제거되어야 하고 강자층의 번식과 성숙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sup>37)</sup>

- 
- 1984), p.8 ; 김덕호, "사회 다원주의," 김영환 편, 「서양의 지적 운동」(지식산업사, 1994) p.569. 이하에 서는 자연계의 진화를 대상으로 한 생물학적 진화론을 진화론으로, 이것을 사회에 적용한 것을 사회진화론으로 표기한다.
- 36) 사회진화론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것으로는 Goudge, art.cit. ; R. J. Halliday, "Social Darwinism : A Definition," *Victorian Studies*, Vol.14, No.4 (1971) , David L. Hull, "Darwinian and 'Darwinian' Evolutionism in the Study of Society and Culture", in, *Comparative Reception of Darwinism*, p.394 ; Bernard Semmel, *Imperialism and Social Reform : English Social-Imperial Thought, 1895-1914* (New York : George Allen & Unwin, 1960), pp.30-31 참조. 특히 19 세기 영국 사회진화론을 유형화하여 설명한 것으로는 서정훈, "19 세기 말 영국의 사회진화론들-생존경쟁 단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양영학술연구논문집」 제4호 (1996. 12).
- 37) Herbert Spencer, *Social Statics* (1851), part 3, ch.25, sec.6. 스펜서는 *First Principles*(1862)와 *Study of Sociology*(1873)에서도 이런 견해를 유지했으나, 말년에 이를러서는 자연선택의 중요성을 절하하면서 수정하려 하기도 했다. Philip Abrams, *The Origins of British Sociology, 1834-1914* (Chicago : Univ.

그런데 만일 국가가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약자층을 지원-예컨대 주택과 교육 제공, 구빈정책 시행-하면 생존경쟁의 중단, 무가치한 삶의 영구화 등의 사태를 초래하여 사회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는 우려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의 수행, 대내적으로는 계약 이행의 강제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규제와 공공정책에 반대했다. 그것들이야말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더 많은 강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이었다.<sup>38)</sup> 이제 그의 사상적 관심이 자유의 증진과 자유사회 건설에 쏠렸고, 그 자유사회상은 진화론의 토대 위에 선 것임이 명백해졌다. 즉, 그의 사상은 국가의 간섭이 진화의 동력을 방해한다는 인식에 단서를 두고, 그것이 해방되어 자유가 활성화되는 상황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를 진화론적 개인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린 이유 때문이다.<sup>39)</sup>

스펜서의 인간사회상은 적자가 생존하고 부적자가 제거되는 상설 전장으로, 또한 자유의 진보를 위하여 이런 생존경쟁은 국가의 간섭이나 사회개혁에 의한 제약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런 부류의 해석은 그의 사회진화론을,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사이비 과학 내지는 이데올로기로<sup>40)</sup> 간주하는 경향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의 사회진화론을 단순히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은, 그의 사상 체계 내에서 고전주의 정치경제학이나 전통적인 철학 또는 윤리학이 진화론과 무관하게 그런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진화론의 형태가 다양한 데도, 일부 논자는 각 형태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마치 사회진화론 전반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응호한 것인 양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스펜서의 이론에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도, 19 세기 말에 동아시아 3국에 전파되어 민족주의를 방법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사회진화론은, 크로포트킨(Kropotkin) 류의 무정부주의와 결부된 사회진화론은, 그리고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 비판에 활용했던 사회진화론은 그들의 비판과 상반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반스펜서적 논자를 상당수에게 비판의 눈거리를 제공했던 호프

of Chicago Press, 1968), p.73. 그러나 농요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의 주조는 여전히 개인주의였다. 그가 말년에 사상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했던 사회유기체론을 포기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38) 스펜서에게 국가의 역할 축소는 자유사회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그는 국가가 군사사회(militant society)에서 생겨났지만 전쟁이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단계에서는 시대에 뛰어진 것이어서 사회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자연진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여 국가가 가하는 세액으로부터 진화의 동력을 해방시켜자 자율규제적 자유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펜서의 입장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억제하는 군사사회로부터 자유를 증진하는 산업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두 유형의 사회에 관한 설명은 Spencer, *Principles of Sociology*, Part.V, chs.xvii-xviii ; Spencer, *Principles of Ethics*, Vol.1, pp.255-257 ; William J. Miller, "Herbert Spencer's Optimum Development Pat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26, No.4 (December 1975) ; J. D. Y. Peel, *Herbert Spencer : The Evolution of a Sociologist* (New York : Basic Books, 1971), pp.192-223.

39) 어떤 논자는 사회진화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그의 것을 개인주의적 또는 자유방임 지향적 사회진화론이라고, 그리고 국가주의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집단주의적 또는 국가간섭 지향적 사회진화론으로 분류한다. 서정훈, 앞의 논문, p.338. 그러나 스펜서의 사상에서 자유가 목표이고 진화가 그 수단인었던 한, 그리하여 사상의 주조가 개인주의에 두어지고 사회진화론은 그것을 위한 방법론이었던 한 개인주의적 사회진화론보다는 진화론적 개인주의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보다는 진화론적 집단주의가 더 적절할 것이다.

40) Barker, *op.cit.*, pp.12-13 ; Hofstadter, *op.cit.*, p.12 ; Robert M. Young, "The Historiographic and Ideological Contexts of the Nineteenth Century Debate on Man's Place in Nature," Teich & Young (ed.), *Changing Perspectives in the History of Science* (Dordrecht, Holland : D. Reidel, 1973), p.14 ; 박찬승, pp.341, 353-354. 호프스태터는 스펜서가 스미스(Smith)보다 더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극단적 응호자라고 단정한다. 박찬승은 형태의 구별을 생략한 채 사회진화론이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 지배와 제국주의 국가의 약소국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서,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 준 사회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스태티조차도 스펜서가 설과한 가치가 자본가 계급의 그것이 아닌 중산층의 그것임을 시인한 것이나, 스펜서가 괴정복 민족은 물론 정복 민족의 자유 측면을 우려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한 사실은 당연히 그러한 비판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sup>41)</sup>

스펜서의 이론을 사회진화론의 성수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진화론의 형태는 다양하기만 하다. 어떤 논자도, “다원의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은 그 이론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간에 각각의 이념적 입장에서 각자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다원주의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정의내렸다”고 하면서 사회진화론의 다양성을 암시하고 있다. 덧붙여 그는 버로우(Burrow)의 견해를 인용하여 각종 형태의 사회진화론을 준별할 필요를 제기하면서 social Darwinism을 사회다원주의로 관념할 것을 제안한다.<sup>42)</sup> 그러나 이런 시도에는 몇 가지 결함이 숨겨져 있다. 첫째, 과연 다윈이즘(Darwinism)은 다원의 진화론만을 지칭하는 개념인가? 이미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대 진화론의 형성 과정에서 획득한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에, 다윈이즘은 생물학적 진화론을 포괄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다윈이즘을 다원주의로, social Darwinism을 사회다원주의로 옮기는 것은 보편적인 용례를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둘째, 사회진화론과 사회다원주의를 구분짓는 사회다원주의의 독자성은 무엇인가? 사회다원주의 개념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타 사회진화론과 구별되는 독자적 요소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한 설명이 등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양자를 차별화하는 것은, 설득력있는 유형화 작업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왜 사회다원주의인가? 다수의 진화론중 오직 다원의 진화론만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원용됐다는 것인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사실상 다원과 무관한 독자적인 것이고,<sup>43)</sup> 라마르크의 <획득형질의 유전>이론이 사회진화론에 무시못할 영향을 미쳤으며, 다원은 생존경쟁을 동일 종 내부에서의 개체간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 데 반하여 대다수의 사회진화론자들이 종간 경쟁이라고 강조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다원의 진화론이 사회진화론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다원주의의 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사회진화론이 단일의 모델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양자의 구분으로 사회진화론의 유형화 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속성의 차이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사회진화론이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것이라면 누구의, 어떤 형태의 것인가를 염밀히 준별하여 논의를 펼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과학에 적용된 생물학적 진화론을 포괄하는 총칭으로 사회진화론을 사용하되, 국가사회 내부에서의 경쟁과 선택(intra-societal selection)을 주조로 한 대내적 사회진화론(internal social Darwinism)과 국가사회간의 경쟁과 선택(inter-societal selection)을 주조로 한 대외적 사회진화론(external social Darwinism)으로 구분지을 필요도 있다.<sup>44)</sup> 전자에 속하는 예로는 개인자유의 확대를 매개로 자유사회 건설을 촉구한 사회스펜서주의(social Spencerism)와 획득형

41) D. P. Crook, "Social Darwinism : Some Historical Reflections,"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Vol 39, No.1 (1993), p.88 ; Hofstadter, *op.cit.*, p.12 ; Howard L. Kaye, *The Social Meaning of Modern Biology : From Social Darwinism to Sociobiology*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86), p.26 ; Herbert Spencer, "Imperialism and Slavery," in *Facts and Comments* (1902), p.171.

44) 김덕호, 앞의 논문, pp.569, 597 ; J. Burrow, *Evolution and Society : A Study in Victorian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66), pp.xix-xxi, 115.

43) 다원과 스펜서, 진화론과 사회진화론의 차이에 관해서는 Freeman, *art.cit.* ; James R. Moore, *The Post-Darwinian Controversie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79), pp.159-161, 참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 「국제정치논총」, 34집 1호 (1994), p.206, 주11 참조.

44) 이러한 구분은 Semmel, *op.cit.*, pp.29-31 참조.

질의 유전을 바탕삼아 지속적 사회 진보를 정당화한 사회라마르크주의(social Lamarckism)가, 후자의 예로는 민족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를 합리화한 사회진화론들이 있다.

셋째, 다윈의 진화론은 변용없이 사회에 바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사회다윈주의는 사회진화론의 일종으로서 다윈주의의 핵심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가? 사회진화론자들은 왕왕 사회에서의 적자생존과 생존경쟁을 다윈의 것이라고 빙자해 왔다. 물론 이들이 다른 진화론보다 다윈의 진화론을 자신들의 이론을 합리화하는 데 더 원용하기는 했다. 사회진화론자들은 대체로 생존이 가치의 표준이며 사회의 제가치는 바로 이것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생물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필수적이며 부수적인 것들을 다윈 이론의 정수로 과악한 오해의 산물이어서,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의 자연선택이론을 인간사회에 연결시킨 것일 뿐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이후 초기의 지지자들이 무신론적 유물론자였고, 그것의 해석과 사용에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보다 형이상학적 도덕적 공포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증언은,<sup>45)</sup> 그것이 본래 자유방임주의와 적자생존을 옹호하는 정치사회사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 세기의 진화론이 다윈보다는 스펜서의 시각에서 더 자주 전파되었다는 해석도, 사회문화에 대한 다윈의 영향이 과장되었고, 나아가 이 시대의 사회진화론이 사실상 그의 이론과 직접적 연계가 없었음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의 어느 한 유파조차도 다윈식 진화론의 거울이 아닌 한, 후자를 사회진화론 및 사회스펜서주의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진화론에 사회과학적 함의나 요소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정작 그의 주요 관심사는 그것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아울든 그의 진화론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치학적 사회학적 수사를 내포했다고 인정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 그로부터 다양한 사상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윈이, 자신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었다는 견해에도 수긍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이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진화론의 사회에의 적용을 기피하거나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종의 기원」(1859)에서도 이런 자세는 되풀이 되어 윤리, 사회, 정치 문제에 자신의 자연선택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처럼 자연선택 기제를 사회에 거의 적용하지 않았고, 경쟁이라는 자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 기능의 제한이 자연적 의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인류의 계보」(1871)와 일련의 사신에서 자신의 이론이 인류사와 유관함을 인정했다. 인류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연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인간도 생물처럼 인구 증가에 따르는 생존경쟁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연선택이야말로 사회 진화의 배타적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식, 도덕, 동정심, 협력, 획득형질의 유전이 인류를 문명 단계로 이끄는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그는 자연선택을 진화의 종속변수로 격하시켜 자연선택이론에 내포된 사회적 가혹성을 미리 완화시켰을 뿐더러 문명인은 약소종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그는 좀체로 산업혁명이 빚어낸 경쟁적 사회상과 자신의 이론을 결부시키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진화론으로부터 경쟁사상, 자유방임주의, 폭력과 분쟁에 관한 각종 사상-인종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의도를 반영

45) Kaye, op.cit., p.26 ; Leeds, art.cit., p.443 ; Robertson, op.cit., p.318. 다윈의 진화론 관계 저술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본래 목표나 내면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사회진화론 논쟁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 점을 아예 외면할 수는 없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진화론자들이 그의 진화론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결과일 뿐이다.<sup>46)</sup> 양자 사이의 근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19 세기 이후 정치사회사상의 발전 과정에서 다윈과 스펜서의 이론이 혼합된 것도 사실이다. 스펜서 사상의 영향력은 다윈과의 연계에서 생겨난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본질이 상통한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다윈의 명성과 스펜서식 사회진화론의 유행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이론이 혼동된 결과였다.<sup>47)</sup> 그렇다면,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왜곡된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처럼, 다윈도 오도된 각종 사회진화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 2. 민족주의

19 세기는 부친 살해의 시대이자 구원의 시대였다.<sup>48)</sup> 근대 유럽을 지배해 온 두 권위-신, 군주-가 물락한 반면, 민족주의가 대중과 정치가의 심성을 파고 들어 새롭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진화론적 개인주의가 퇴조를 보이자 민족주의나 인종차별주의 계열에 속하는 진화론적 집단주의가 독세하기 시작한다. 국가사회에 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진화론은 국제분쟁을 합리화하는 사상적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19 세기 후엽-20 세기 초의 일련의 전쟁-크리미아전쟁, 이태리 통일전쟁, 독일 통일전쟁, 1차대전-은 민족주의와 사회진화론의 결합을 촉진했다. 일련의 국제전을 배제하고서 사회진화론의 확산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펜서가 전쟁의 가공성-개인 자유의 억압, 반사회성의 고취-을 경고했지만,<sup>49)</sup> 다수의 지식인들은 전쟁이 생존경쟁의 필수 형태이며 적자생존을 가능하게 했다는 유사 진화론적 견해에 과학적 신뢰를 실어 주었다. 즉, 이 시기에 일련의 전쟁을 겪으면서 자란 지식인 세대는 자연스럽게 물질 진보 및 생존경쟁, 적자생존이라는 과학적 원리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이 결과 민족주의가 강화되어 이타주의와 세계주의(cosmopolitanism) 대신 현실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횡행하게 된다.

다윈 이후로 진화론은 정치단위간 게임 규칙의 변경과 재정립의 필요성 제기, 새로운 지적 경향과 편견의 도입, 인류와 인류사에 대한 생물학적 이미지의 변경을 초래했다. 그 영향 아래 키드(Kidd)는, 인간은 자연세계의 일부여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진화법칙에 종속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들의 생존경쟁은 집단 또는 조직화된 사회들간의 경쟁과 동일 집단 구성원간의 경쟁으로 대별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유기체의 이해는 개인의 그것과 상반되고 이성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내적 경쟁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적자사회란 국가 간의 전쟁 또는 경제경쟁에 대응하여 구성원의 에너지를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규정했다. 피어슨(Pearson)은 개인의 적자생존과 농료 시민간의 경쟁을 진화로 간주했다고 초기 진화론자들-스펜서, 혁슬리 등-을 비판한다. 민족은, 경쟁과 전쟁을 통하여 고도의 대외적

46) Charles Darwin,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81), pp.103, 163 ; Robert C Bannister, *Social Darwinism : Science and Myth in Anglo-American Thought* (Philadelphia : Temple Univ., 1979); James A. Rogers, "The Assessment and Elaboration of Darwinism by Marxism-Leninism,"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Vol.2, p.311. 인간의 도덕 감각이 자연적인 것이고, 습관과 학습이 인간의 자연적 이타주의 성향을 충족시키는 것인 한, 정치적 자연주의는 타당하다는 주장은 다윈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Arnhardt, *art.cit.*, pp.389-397 ; James G. Lennox, "Teleology," in Keller and Lloyd (ed.), *Keywords in Evolutionary Biology*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92).

47) Wells, *art.cit.*, p.50.

48) Friedrich Heer, *The Intellectual History of Europe* (New York : Doubleday, 1968), p.448

49) Spencer, *Principles of Sociology*, Vol.II, p. 241.

효율을 유지하는 유기적 총체이며 발전적 경쟁은 집단간의 것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sup>50)</sup> 이 두 진화론적 집단주의자들의 인식에서 진화론이 민족주의의 강화에 기여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치열해져가는 국제경쟁에서 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880년대의 유럽은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독일의 사상가들이 이런 변화를 선도하고 있었다. 영미의 지식인들이 전쟁을 정당화한 진화론, 우생학, 인종주의를 비판하고 생물학이 인간사의 지도원리라는 주장을 외면했던 반면, 독일에서는 일단의 지식인들이 생존경쟁은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sup>51)</sup> 해켈(Haeckel)이야말로 진화론이 일깨운 생존경쟁과 그것의 민족주의적 효용을 간파하고 실천으로 연결한 대표적 지식인이었다. 그는 그 시대의 주류로서 19세기 중엽 중유럽을 휩쓸던 낭만주의 운동과 혜겔주의를 진화론에 흡수하여, 견잡을 수 없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던 민족주의와 연계시켰다. 그는 보수주의적 혜겔주의를 진화론으로 단장하여 자연과 사회를 통합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일원론을 주장했다. 이 바탕 위에서 그는 경쟁에 부적합한 구성원은 사멸하고 경쟁 능력이 있는 구성원은 생존한다고 역설했다. 이로부터 그가, 경쟁은 사회의 진화를 촉진하고 생존경쟁은 결국 끊임없는 사회 완성 과정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자연법칙에 따라 건강하게 사는 인간집단, 그것을 의미하는 그의 <단일 동포>(single people of brothers) 개념은 그런 시각의 소산이었다.

그는 이처럼 진화론을 정치사상과 역사철학의 기반으로 이용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생물적 본성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사회는 예외없이 경쟁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며, 특히 국제정치에서 국가는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생물유기체라는 것이다.<sup>52)</sup> 그는 이러한 진화론적 사고를 국제정치에 적용하여, 국가가 자연상태에서 적나라하고 절대적 경쟁을 벌이는 결과 적자국가는 생존하고 부적자국가는 사멸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행위는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표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 아니며, 국가라면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sup>53)</sup> 해켈의 이런 주장을 새로운 민족주의상 또는 국제정치이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시대의 맥락에서 보면 독특한 정치담론이 되고 있었다. 그의 이론은 여타 사회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집단의 일종인 국가간의 경쟁에 압도적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동일 종 내부에서의 개체간의 경쟁과 자연선택의 비도덕성을 완화한 다윈의 진화론과,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의 개인간의 경쟁에 더 비중을 둔 스펜서의 진화론과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50) Crane Brinton, *English Political Thought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 Ernest Benn Ltd., 1949), pp.284-287.

51) Hans-Gunther Zmarzlik, "Social Darwinism in Germany Seen as a Historical Problem," Hajo Holborn (ed.), *Making of the Nazi Revolution* (New York : Pantheon Books, 1972), p.442. 현실 면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독일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 독일의 군사력 강화와 비スマ르크의 협상을 그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52) 해켈의 국제정치사상은, 유기체의 승리는 이성이 아닌 경쟁과 순수성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지 말아야 하고, 집단의 생존이 우선적인 것이므로 자유는 집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개인은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한다는 유기체론적 진세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사상이 특정한 시대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면 해켈의 이런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독일이 전례없는 속도와 범위로 공업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이로부터 비롯된 사회경제적 혼란과 낭만주의적 국수주의(romantic chauvinism)과 결부되어 해켈의 사상이 널리 전파되었다 D. Gasman, *Scientific Origins of National Socialism* (London : Macdonald, 1971).

53) 그는 자신의 사상을 실천에 옮겨 1906년에 Monist League를 창설했다. 이 조직은 1차대전 이전까지 독일 청소년들에게 민족주의를 고취하다가 1918년에 해체되었으나, 이후로도 그의 영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같은 부류의 청년조직들이 결성되어 사회진화론과 낭만주의로 과거를 친미하고 있었다. Torbjorn Knutsen, *A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nchester : Manchester Univ. Press, 1992), p.181.

진화론은 전통질서의 모순과 서구로부터의 충격으로 2중 위기에 처했던 동아시아 3국에도 전파되어 근대적 민족주의를 육성하는 데 이용되었다. 일본의 경우 가또(加藤弘之)는 여타 강단 학자들과 함께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진화론을 수용하여 민족주의는 물론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의 기반사상으로 이용했다. 중국의 경우 리양치차오(梁啓超)는, 특히 각종 진화론의 영향 아래 자강(自強)의 국가 관념 강화, 정치 참여 개념 제시, 전통적 인간상의 변경-신민(新民)-을 강조함으로써 청말-민국 초기의 중국 지성계에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흥기를 자극했다. 한국의 신채호는 전통적 유교사상을 비판한 토대 위에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새로운 민족주의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지배층과 폐지배층간의 수직적 관계를 청산한 민족국가의 건설을 촉구함으로써, 전환기의 한국 지성계에서 근대적 민족주의상의 개발을 주도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아시아 3국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은 진화론적 자강사상에 입각하여 민족국가의 건설로 대외적 위기에 대처하려 했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sup>54)</sup>

### 3. 인종차별주의, 제국주의

19 세기 말,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를 점차 대치하면서 그리고 식민지 획득을 자제하던 독일마저 나서면서 제국주의적 팽창이 절정에 도달한다. 인류의 진보와 적자의 생존은 종족간, 민족간의 경쟁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어서,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대중의 제국주의적 정서에까지 진화론적 정치 관념이 침투했다. 일부 지식인들은 1880년대 이후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심지어는 우생학까지도 합리화할 수 있는 원리를 진화론으로부터 유추해낸다. 이 결과 진화론은 이 시기의 제국주의를 강화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윈 류의 진화론을 정확히 해석하고 반영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진화론을 이용하여 인간의 능력과 조직의 차이는 종족간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55)</sup> 물론 유전학의 발전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진화론-적자의 생존, 부적자의 제거-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종차별주의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생물학적 진화론-특히 자연선택-을 사회 분석에 이용할 경우 혼란과 위협이 초래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인간사회와 생존경쟁은 맬더스적 의미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물리적이기보다는 도덕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

54) 동아시아의 경우 대체로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진화론이 수용되었다. 더구나 가또로부터 출발하여 리 양치차오를 거쳐 신채호에 이르는 사회진화론의 전파 통로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의 연속적 전파 과정에서 일어난 굴절은, 3국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에게 민족주의상의 보편성과 아울러 특수성을 갖게 했다. 이 결과 위의 3인은 공히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발굴했으나, 신채호 사상의 최종 형태인 부정부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보완 관계를 이루었던 것이어서, 각각 제국주의와 국가주의로 귀착된 가또와 리양치차오의 사상에 대하여 상대적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와 참고문헌은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 - 加藤弘之, 梁啓超, 中采浩의 사상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2)를 참조할 것.

55) 그러나 진화론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요소가 내포된 이 시기의 인종주의에 동태성을 부여 했을 뿐, 후자의 역사는 전자의 그것보다 오래된 것이다. 유럽의 인종주의는 중세의 카톨릭 계열 군주들이 유태인 은행가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인종적 편견을 고취한 것에 기원을 둔 것이다. 그것은 16 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동원하여 미주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종주의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기는 했지만 유사과학적 근거나마 갖추고 구미국가들에서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은, 진화론과의 결합이 이루어진 19 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부터이다. 그것은 역사의 진보 과정의 주역임을 자처하는 백인종의 후진 지역 지배 권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마침내는 독일의 팽창주의적 인종주의에 흡수되어 나치즘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였다. Maurice Duverger, *The Idea of Politics : The Uses of Power in Society* (London : Methuen, 1964), pp.12-19 ; Ali A. Mazrui, 'From Social Darwinism to Current Theories of Modernization,' *World politics*, Vol.21, No.1(1968), pp.70-71.

문에, 자연선택이론을 사회로 확장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단서를 붙여 신중을 기했다.<sup>56)</sup> 멀지 않은 장래에 우월한 인종들이 야만 열등 인종들을 대치할 것이라는 그의 예상이 후일 인종차별주의의 재등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에 불과하다. 그가 궁극적으로 신뢰한 것은 인류의 통합이었고 거리를 둔 것은 인종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였기 때문이다. 그가 인간사회에 관한 한 자연선택보다 환경과 관습의 유전 효과를 더 중시했음은 문명사회에서 자연선택은 진화의 종속변수이며, 문명인종 가장 능력있는 자는 고도의 지식, 정력, 용맹, 애국, 자비를 갖춘 자라는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4장 참조).

### (1) 사회제국주의(social imperialism)

188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국가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해석한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개인주의가 집단주의로부터, 자유무역주의가 보호무역주의로부터 도전받고 있었다. 양자간의 경쟁은 결국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대내적인 경제적 경쟁을 강조하는 스펜서 류의 사회진화론에 대하여, 제국주의적 경쟁을 정당화하는 비스펜서적인 사회진화론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끝난다.<sup>57)</sup> 다시 말하자면, 대외적 사회진화론이 대내적 사회진화론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를 지지하는 논자들은 다원적 자연선택이론을 이용하여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소국가 지배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예컨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사적 턱목을 배양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적자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리고 보불전쟁 이후에는 전쟁을 불가피한 생존경쟁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제기되었던 것이다.<sup>58)</sup>

대외적 사회진화론자들-키드(Kidd), 피어슨(Pearson), 킹슬리(Kingsley) 등은 대내적 자유경쟁을 비판하면서 국가 주도의 사회개혁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대외적 경쟁에서의 승리를 옹호하고 있었다. 셈멜(Semmel)은 이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사회제국주의자로 규정했거나와, 이런 형태의 사회제국주의이론(social imperialism)은 비스펜서적인 사회진화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었다.<sup>59)</sup> 사회제국주의는 모든 계급을 통합하여 국가를 수호하려 한 것으로서, 빙곤 계급에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그것과 불가분의 것임을 입증하려 한 것이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사회개혁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노동자 계급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자, 노동자들이 국부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사회주의적 국제주의(socialist internationalism)가 중대한 장애를 만나게 된 것이 그 성립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노동자 계급에게도 제국주의적 정치문화가 확산되는 등 정치환경이 변화하자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회제국주의정책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양차대전 사이의 기간중 페이비언주의자들의(Fabians) 사상도, 제국주의와 사회개혁이 그러한 상호의존 관계에 놓여 있다는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sup>60)</sup>

56) Michael Banton, "The Anatomy of Post-Darwinian Sociology," in *Darwinism and the Study of Society*, p.168.

57) David G. Ritchie, *Darwinism and Politics* (New York : Swan Sonnenschein & Co., 1909), pp.27-37.

58) Hayes, *op.cit.*, pp.255-257.

59) 그러나 사회제국주의가 스펜서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라마르크의 획득형질의 유전설을 수용하여 종이 개선된 결과로 사회 진보는 불가피하며, 적자생존을 저해하고 부적자를 면식하게 하는 정책은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런 시각이 19 세기 말-20세기 초에 우생학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도와 상반되게 영국인들에게 제국주의적 심성을 심어주었음도 사실이다. Abrams, *op.cit.*, p. 74.

60) 노이만(Neumann)은, 사회제국주의가 지배 계급이 제국주의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즉 침략적 팽창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제국주의체제에 흡수하려는 시도-선거권 확대,

키드(Kidd)는 대내적 사회진화론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여 수용했지만, 대외적 생존경쟁의 기초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에 모두 반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 의하면 사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집단간의 경쟁이나 집단구성원간의 경쟁에 적용되는 법칙은 동일하다. 다만 사회유기체의 이해는 개인의 그것과 상반되는 것이, 이성과 이보다 더 심오한 종교의 이타주의가 종족의 선(good)을 위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희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유래된 이타주의는 야만적 경쟁을 문명적 경쟁으로 발전시키고, 자유방임을 초월하여 사회적 평등 또는 사회적 기회가 평등한 여건을 창조하며, 그리하여 생존경쟁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고 인간화의 효율을 제고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의 평등에 기초를 둔 사회적 효율(social efficiency)이 제고되어야 경쟁도 활성화된다는 인식에 따라 제국주의적 경쟁을 지지하는가 하면, 이 경쟁에서 앵글로색슨족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sup>61)</sup>

피어슨(Pearson)은 이미 1880년대에 생존경쟁과 사회주의를 연계하여 진화론과 사회주의의 조화를 꾀한 독특한 사회진화론을 개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급투쟁과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에 반대하면서 계급 통합을 역설하는가 하면, 대외적 경쟁을 무시하고 대내적 경쟁을 강조한 구시대의 진화론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에게 사회 진보의 동력은 집단 내부의 경쟁이 아닌 국가간의 외부적 경쟁이었다. 그 외연에서 집단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하여 국가, 식민지,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를 전형적 사회제국주의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가 비록 사회제국주의의 대표적 논객이었어도 대내적 경쟁이 부당하다거나 진보에 비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대내적 경쟁을 완화하여 진보를 확보하자고 한 것이다. 이 점에서는 그의 이론이 키드의 그것과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전형적 사회제국주의자로서 키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은 갈튼(Galton) 류의 <우생학>을 계승하여 확대한 것에서 드러난다. 우생학의 콜간은, 근대 산업사회에서 적자보다 부적자가 숫적으로 더 많이 생존하기 때문에 사회선택(societal selec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영·미에서의 초기 우생학은 생물학적 적자성-주어진 환경에서 생존과 재생산에 성공-보다 도덕적 적자성을 개선하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갈튼은 그 대표자로서 종의 진화에서 유전이 환경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sup>62)</sup> 그는 인간의 선천적 성향과 능력은 상이하기 때문에 지속적 진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종 개량이 중요하다고 하여, 인종차별주의가 우생학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우생학의 내용이 더욱 더 가혹해지고 비인간적인 것이

불질적 혜택의 확대 등 대중에 대한 양보-라고 규정한다. 슈페터는, 기업가와 다른 요소들이 수출 독점에서 산출되는 사회적 부를 양여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부추기는 현상이며 고대의 대중제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시도라고 파악한다 힐퍼딩(Hilferding)과 레닌도 사회제국주의 현상에 주목했으나, 이를 Sozialimperialismus라고 최초로 개념화한 이는 렌너(Renner)였다. Semmel, *op.cit.*, pp.13-14.

61) Brinton, *op.cit.*, pp.284-287. 키드의 사회진화론에 관해서는, 내부 경쟁을 외부경쟁으로 대치하여 세국주의를 정당화한 것이라는 셈멜 류의 해석이 지배해 왔다. 그러나 크룩(Crook)과 서정훈은 이런 전통적 해석에 반대한다. 즉,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개인간의 경쟁을 사회 진보의 동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키드가 대내적 경쟁을 대외적 경쟁으로 환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내적 경쟁의 중요성을 기본으로 한 터전 위에 대외적 경쟁의 중요성을 추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효율이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일 수도 있고 대내적 경쟁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수취에 의해서도 세고될 수 있었던 한, 그의 이론은 대내적 사회진화론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기도 그리고 셈멜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외적 사회진화론에 주조를 둔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차라리 그의 이론은 대내외적 사회진화론에 동등한 비중을 부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리라 여겨진다. 상세한 것은 Crook, *op.cit.*; 서정훈, 앞의 논문, pp.367-370 참조.

62) Charles E Rosenberg, *No Other Gods : On Science and American Social Thought*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 pp.89-97. 우생학에 관해서는 Francis Galton, "Sociology as Eugenics," in Abrams, *The Origins of British Sociology*, pp.260-264.

되면서 기독교, 민주주의, 개인자유의 원리를 위협할 수 있음이 판명되자, 영미의 지성계와 정치권에서는 그것에 대한 과학적·도덕적 반박이 거세게 제기되었다.<sup>63)</sup> 그러함에도 피어슨은 정치 환경의 개선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노선을 쫓아 갈등의 우생학을 진보의 종교로 수용한다.<sup>64)</sup> 그리하여 그는 인종 개량과 의식적으로 조성된 인종문화가 생존경쟁에서의 승리에 도움이 될 것임을, 백인의 다산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점령할 것을, 그리고 유럽내에도 인종차별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렇듯 인종의 우열을 세계적으로 세계화하고 세국주의적 경쟁을 강대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합리화한 피어슨에 비추어 보면, 진화론적 사회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유기적 음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2) 앵글로색슨주의

19 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인종차별주의의 주요 형태는 앵글로색슨주의였다. 그런데 앵글로색슨주의는 기본적으로 진화론보다는 근대 민족주의와 낭만주의에 의존한 것이어서 그 자체는 인종차별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구였을 뿐 유일한 도구는 아니었다.<sup>65)</sup> 영국의 경우 이미 키드, 피어슨 등에 의하여 제국주의와 함께 널리 전파되었고, 미국에서도 그것은 1885년 이후 미제국주의에 주상적 근거를 제공했다. 미국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에 수반된 사회병리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생학이 발전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접종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던 사회진화론이 우생학으로 확장을 고치고 재등장한다. 우생학과 결부된 이 시기의 그것은 국가의 간섭과 집단적 사회 행위를 중시하는 진보적 색채를 띠기도 했다. 그리하여 대외적인 면에 주조를 둔 진화론은, 앵글로색슨의 세계 지배 방략이 그 적자성을 정당화함으로써, 앵글로색슨의 우월성에 대한 신뢰를 지속케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내적 경쟁을 지지하는 데 이용되었던 진화론이 이제는 대외적 경쟁과 팽창을 지지하는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 수가 막대하게 증가하는 영어 사용 주민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적자생존이라고 한 그린(Green)이나, 정치를 조직하는 고도의 능력은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 시기에는 튜튼족만이 우월한 정치적 역량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벌제스(Burgess)의 주장은, 그러한 인종차별주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피스크(Fiske)는 일찌감치 진화론과 제국주의 그리고 앵글로색슨주의를 종합하여 폭력의 국가정책 도구성을 부인하면서도 인종차별주의를 주장한 논자였다. 즉, 그는 스펜서를 추종하여 전쟁이 산업사회의 생산적 경쟁으로 대치되었다고 간주했던 것이다. 이 결과 호전성이 악화되면서 정복의 방법이 연방제로 대치되었다는 파악에 근거를 두고, 앵글로색슨의 팽창에 따르는 정복-예컨대 미서전쟁, 영불전쟁-을 합리화했던 것이다. 앵글로색슨주의의 극치는 스트롱(Strong)에게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앵글로색슨 인종의 인구가 여타 유럽 인종보다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이야말로 바로 그 앵글로색슨의 온상이기 때

63) Robert C. Bannister,"Survival of the Fittest is Our Doctrine ?,"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31, No.3 (1970), pp.394-398 ; Idem, *Social Darwinism : Science and Myth in Anglo-American Social Thought* (Philadelphia : Temple Univ. Press, 1979), p.177 ; Hamilton Cravens, *The Triumph of Evolution : American Scientists and the Heredity-Environment Controversy, 1900-1941* (Philadelphia :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78), pp.172-181. 영국의 경우 일부 웨이비언주의자들 웨尔斯(Wells), 웨b(Webb), 쇼(Shaw)-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식인, 정치인, 자유주의자들이 우생학의 타당성을 배척했던 바, 심지어는 키드까지도 피어슨의 우생학을 비판했다. Semmel, *op.cit.*, pp.50-52.

64) 사회 병리 현상을 해결하는데 부적자의 재생산 제한-단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은, 피어슨이 갈등보다 더 급진적이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65) Hofstadter, *op.cit.*, p.174.

문에 인류 진보의 절정은 미국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특하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앵글로색슨주의를 합리화했다. 미국의 비거주지에도 인간이 들어차 인구 압력이 가중되면 세계는 새로운 역사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이 그 단서였다. 그리하여 앵글로색슨이 그 동안 갈고닦아 온 경쟁력을 발휘하여 최후의 경쟁에서 세력을 팽창하는 것이 적자생존이라는 것이다.<sup>66)</sup>

앵글로색슨주의는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지도자들-비버리지(Beveridge), 롯지(Lodge), 헤이(Hay), 루즈벨트(Roosevelt)-에게도 호소력을 가진 것이었다. 렐리핀 합병 기간중 제국주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진보의 법칙, 팽창의 경향, 적자생존을 중요성을 내세운 것이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확산되고 있던 제국주의에 자극받은 앵글로색슨주의 등의 인종차별주의는 왜곡된 진화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사이드(Said)는, 그것이 생물학적 결정론과 정치적 우월감에 입각하여 여타 인종과 마찬가지로 동양계 인종들(Orientals)을 후진, 부패, 야만으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sup>67)</sup> 거꾸로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인종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한 종족을 우월하게 만들기도 했다. 결국 비유럽 인종의 후진성과 부패에 따르는 유럽 인종의 우월성을 그리고 이에 따라 유럽 인종의 비유럽 인종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한 것은 유사 생물학적 인종 불평등 사상과 결탁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시대에 인종차별주의의 전형이었던 앵글로색슨주의는 1차대전 발발시까지 횡행하다가, 그 비과학성과 무도덕성에 대한 비판적 반동으로 인하여 종전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된다.<sup>68)</sup>

### (3) 나치즘

19 세기 말-20 세기 초 거의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서 인종적 문화적 우월 관념은 이미 제국주의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진화론을 과학으로 포장하여 특정 형태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도 또한 흔히 있는 일이었다. 진화론중에서도 자연선택이론을 맹신하는 이들은 인종차별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의 이데올로기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sup>69)</sup> 특히 독일의 식자들은 진화론을 이용하여 기술 진보를 유물론적 시각에서 지지하던 이전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1880년대 이후로는 주로 특정 계급의 특권, 특정 인종의 다른 인종에 대한 공격적 행동, 경제적 착취의 필요성을 변호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보불전쟁은 진보에의 도전이 아니라 진보의 확인이라는 주장은 이런 지성계의 동향 변화의 산물이었으며, 해켄은 그러한 변화를 선도한 사람이었다. 그의 소론이 진화론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임은, 역사를 힘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집단간의 경쟁적 진화 과정으로 파악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관념에 저변을 두고, 독일 민족은 우월한 종족이므로 아리안족의 독특한 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외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교육 체계에서 평등과 조화를 지지하는 자유주의 같은 외국사상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독일의 인종차별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66) *Ibid*, pp.174-179.

67) Edward W. Said, *Orientalism*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78), pp.206-207, 232-233.

68) Zmarzlik, *art.cit*, pp.451.

69) Michael Banton, *Racial and Ethnic Competi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3), pp.46-47 ; Woodruff D. Smith, *The Ideological Origins of Nazi Imperialism*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86), p.150.

라첼(Ratzel)은, <이주의 법칙>(law of migration)으로 진화론을 변형시킨 바그너(Moritz Wagner)와 해겔의 영향 아래 생물학적 <생존권>(Lebensraum) 개념을 최초로 주조했다. 그 개념은 낭만주의적 농본주의와 진화론의 토대 위에 구축된 것으로서, 인간사회에서 국가와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환경에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지리적 결정론에서 새로웠던 것은 적응과 변화가 아니라 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종의 이주>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이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는 데 성공하면 더 이상의 적응을 위하여 다른 환경으로의 확산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의 경향이므로, 인간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이주가 역사의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지리적 결정론이 명하는 바에 따라, 유럽인들이 열대 기후에 적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 했고, 새로운 영토와 생계수단의 획득은 과학과 자연윤리의 시각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그는 독일의 인종차별주의와 제국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생존권 관념으로부터 도출된 정치적 교의, 즉 민족과 민족이 진화해 온 지리적 영역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민족국가는 그 주민의 질과 능력에 따라 영역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유기체라는 주장은 다수의 독일계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 공유되었다.<sup>70)</sup>

1차대전 이후 영미권에서는 그 반동성에 대한 반발로 말미암아 인종차별주의가 사라졌으나, 독일에서는 1차대전에서 군사적 패배와 정치적 좌절을 겪은 이후에도 국가재건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인종차별주의가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아르타마넨(Artamanen)이, 독일인의 생존권 확대를 위하여 폴란드인의 제거를 주장한 것이 그 좋은 예였으나, 후일 히틀러의 적세 세력이 되는 회스(Hoss), 히틀러(Himmler) 등이 해겔의 영향으로 창설된 청년조직에서 인종차별주의와 제국주의를 교육받고 있었다. 그런데 생존권이론과 연계된 인종차별주의에서 반유대주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나치가 등장한 이후의 일이었다.<sup>71)</sup> 히틀러는 독일 민족-아리아 인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진화론을 이용했고, 그 극치가 「나의 투쟁」(Mein Kampf)이었음은 분명하다. 거기서 그는 유대인을 어떠한 사회에서나 제거되어야 할 파괴적 요소로 간주했다. 이런 반유대주의는 당시의 독일 지식인들이 히틀러와 함께 '신시대의 세계사는 최선자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는 생물학적 엘리트주의 관념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헤어(Heer)는 지적한다.<sup>72)</sup> 그리하여 나치정부는 모든 사회학의 원인을 소수자-유대인과 유색인종-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중세부터 이어져 내려온 속죄양의 방법으로 인종차별주의를 이용했다. 아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우월한 소수로서의 백인은, 그들의 역할이 없으면 자연적 야만 상태로 회귀할 열등한 유색인종을 위하여 문명을 이식하고 권력의 책임을 진다는 언명은, 부적자의 국제적 제거가 그의 궁극적 목표였음을 암시한다.<sup>73)</sup>

70) Smith, *op.cit.*, pp.146-150. 그리고 그는 독일의 해군력 증강, 해외이익 보호, 농업식민지와 전통적 가치의 보존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우스 호퍼(Haushofer), 굽플로비츠(Gumplovicz), 스토커(Stoecker), 베르나르디(Bernhardi) 등이 라첼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

71) 당시의 강력한 우익 식민주의 집단이었던 <범독일동맹>(Pan-German League) 조차도 반유대주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Geoff Eley, *Reshaping the German Right : Racial Nationalism and Political Change after Bismarck*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0), p.245.

72) Heer, *op.cit.*, pp.452-453.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독일의 제국주의를 이데올로기 면에서 사회진화론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세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성당화하는 데 조약한 진화론을 이용했다고 하는것이 더 정확하다. Heinz Gollwitzer, *Europe in the Age of Imperialism, 1880-1914* (London, 1969), pp.158-159, 179. 당대는 물론 후대의 사회정치사상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진화론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73) 히틀러 저, 서석연 역, 「나의 투쟁」 (범우사, 1989), pp.300-306, 310-336.

#### 4. 마르크스주의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급진주의자들도 종의 진화가 가능하다면 정치체제의 진화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화론이 정체된 정치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르크스가 일시적이나마 진화론의 효용을 부분적으로 긍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더구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진화론이 자신들의 사회진보이론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투쟁을 강조하고 유물론적 논리에 의존하는 것이었던 데다가, 정치의 면에서 사회주의의 반대 세력이 진화론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4)</sup> 그리하여 그들은 진화론을 수용하여 학문 각 분야-인류학, 유물철학, 심리학, 문화사-에서 진화론적 유물론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윈의 적용 개념이 급진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과학적 지평을 열어 주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기체는 자신을 변화시켜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주장이 분명히 그런 작용을 했다. 마르크스마저도 진화론이 자본주의적 생산법칙과 그 궁극적 결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함을 간파하고 있었다. 특히 다윈의 적용 개념이 「자본론」을 저작중이던 마르크스에게 유용했던 것은, 인간이 노동으로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인간이 자연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주장은 물론, 유기체와 역사는 덜 완벽한 것에서 더 완벽한 것으로 진보한다는 헤겔의 주장과도 부합되기 때문이었다. 「종의 기원」은 이처럼 마르크스의 자연사관의 타당성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었다. 즉 사회의 진화를 자연사의 과정으로 환원시켜 과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리하여 자신의 이론을 자연과학의 시각에서 정당화해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sup>75)</sup>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다윈의 업적을 찬양하기도 했다. 엥겔스는 맬더스식의 생존경쟁 관념이 진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화론을 재해석하려 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진화론이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을 자연과학에서 확인해 주는 것임을 입증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론을 위협하는 부분에서는 진화론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주로 개체간의 경쟁을 강조한 다윈 류의 진화론이 자본주의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계급투쟁과는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계급간 유대 및 갈등의 최종적 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sup>76)</sup> 그런 데다가 계급투쟁이 다윈 류의 생존경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진화론의 한 분파로 절하되고 경제결정론이 종결정론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진화론의 수용을 가로막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진화론의 영향을 거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생산양식>을 중시했기 때문이

74) 보수주의자들이 진화론에 반대한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와 연계된 것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예를 들면 해겔-도, 각각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을 옹호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간파하고 진화론을 수용하게 된다. R. W Clark, *The Survival of Charles Darwin* (New York : Avon Books, 1984), p.233.

75) Lewis Feuer,"Marx and Engels as Sociobiologists," *Survey*, Vol.23, No.4 (1978), pp.109-136 ; Andrew Gamble,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London : Macmillan, 1981), p.114.

76) 엥겔스도, 인간사회에서의 경쟁은 생산과 생산수단의 통제를 둘러싼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투쟁이라서 사회에서의 생존경쟁은 자연에서의 그것과 무관하며, 이 결과 진화론이 인간사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aye, op.cit., p.25 ; Rogers,"The Assessment and Elaboration of Darwinism by Marxism-Leninism," pp. 306-308.

었다. 그들은 각 시대의 생산양식이 특수한 인구증가 법칙을 규정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모든 투쟁을 맨더스식의 생존경쟁으로 환원하는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각 시대 각 사회의 투쟁을 존별하려 했다. 그런데도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생존경쟁이라는 단일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는 오류를 수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즉, 생산양식이 인류의 진보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생산력의 증대는 적자생존과, 계급 투쟁은 자연선택과 조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인간사회의 법칙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77)</sup>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마르크스의 후계자들이었고, 그중에서도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특히 그러했다.<sup>78)</sup> 러시아에서는 우선 마르크스 이전의 급진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사상과 진화론을 양립시키려 시도했다. 노진(Nozhin)은 그 선구자로서, 생존경쟁은 종 내부가 아닌 종들 사이에서 전개되므로 개체로서의 인간에게 생존경쟁은 외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생존경쟁은 인류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보다 협력이 자연스러우며 생존에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그는 협력의 필요성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상부상조(mutual aid)와 종의 유지 필요성을 역설하여, 그는 러시아 민중주의(populism)의 두 특성-과학주의와 윤리적 인도주의-을 통합하고, 러시아 지식인들의 진화론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화론을 이용하여 사회주의혁명의 이상을 과학적으로 지지하고, 상부상조를 자유와 진화의 수단으로 합리화하는 전통이 그로부터 수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화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을 최초로 러시아에 도입한 이는 플레하노프(Plekhanov)였다. 그는 서구의 주류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양자의 융화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점에서 그리고 독일 인종차별주의의 영향에 노출되어 지리적 환경이 사회진화의 결정적 요인임을 시인한 점에서 특이하다. 그에 의하면 다윈은 종의 기원을 인간 본성이 아닌 유기체의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설명했고,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을 인간 본성이 아닌 사회관계의 속성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양자의 방법론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자이면서 사회학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인 것이 가능하며, 마르크스주의는 사회과학에 적용된 진화론이라는 것이다.<sup>79)</sup>

## 5. 무정부주의

진화론에 따르자면 자연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이자 적자가 생존하고 부적자가 제거되는 장이다. 그러나 노진(Nozhin)은 상부상조의 시작에서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여과시켰다. 즉, 생

77) Rogers,"The Assessment and Elaboration of Darwinism by Marxism-Leninism," p.307. ; Terrel Carver,"Darwinism," in Tom Bottomore et al. (eds.),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Oxford : Basil Blackwell, 1983), p.113. 이런 비판이 그를, 다워 류의 진화론이 경쟁적 자본주의를 자연 영역에 투사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것임을 지적한 최초의 논자중 하나로 평가하게 한다. 엥겔스도 진화론을 경쟁적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치주로 이용한 위험성을 지적한다. 즉 진화론은 자본주의의 현실과 그 이념적 방어를 자연에 이관했다가, 다시 유기체로부터 역사로 이관하여 인간사회의 영속적 법칙으로서의 타당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Karl Marx, selected and translated by Saul K. Padover, *The Letters of Karl Marx*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9), p.157 ; Marshall Sahlins, *The Use and Abuse of Biology* (Ann Arbor : Univ. of Michigan Press, 1976), pp.102-103.

78) 그러나 베벨(Bebel)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의 동일화를 경계하고 있었다. Pannekoek은 진화론과 사회주의의 불가괴성을 융합시키려고 노력하면서도, 부자는 혀약해도 생존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인간의 생존경쟁은 최고최선인 존재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진화론을 비판했다. Knutsen, *op.cit.*, p.178.

79) James A. Rogers,"Russia - Social Sciences," in *Comparative Reception of Darwinism*, pp.265-266.

존경쟁의 원인인 분업을 폐지하고 상부상조를 실현해야 개인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크로포트킨(Kropotkin)은 러시아 급진주의의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상부상조는 모든 종의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 무정부주의자였다. 그는 다윈을 제반 사상과 윤리학의 원조로 간주할 정도로 진화론의 기반 위에 서있었으나, 문제는 진화론에 상부상조 개념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는, 상부상조는 인간이 아닌 자연이 만든 도덕이며 인간은 이를 인지하고 활용할 뿐이라고 보아 자연 과정을 협력과 윤리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자연 과정을 윤리적으로 반대해야 할 악으로 간주한 혁슬리(Huxley)의 견해에 반대했다.<sup>80)</sup> 그는 다윈의 진화론에는 우울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깔려 있지만 나름 대로의 윤리적 요구 즉 사회적 유대 의식도 개입되어 있다고 파악했다.

다윈은, 인간의 이러한 윤리 의식이 집단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부상조 관념의 선구자였는데도, 다른 이들이 다윈의 이론을 흡수적인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그는 비판했다. 그리하여 그는 혁슬리의 이원론적 진화론 대신 일원론을 채택하여, 모든 진화 과정에는 자연선택보다 더 중요한 법칙-상부상조와 이타주의적 경쟁-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의 진보는 부자비한 생존경쟁이나 적자생존이 아닌 개인간의 경쟁이 종속되는, 자연적으로 진화된 이타주의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상부상조와 이타주의를 진화의 동인으로 중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생존경쟁의 단위는 다윈과는 다르게 개체가 아닌 집단이었다. 개체간의 경쟁이 아닌 외부 환경-자연-과 종간의 경쟁을 기본적 생존경쟁으로 파악했던 한 그런 선택은 불가피했다. 생물이건 인간이건기에 가혹한 자연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회를 건설했으므로 자연에 대항하는 집단에게 최선의 전술은 단결이었다. 또한 자연도 군집성, 사회성, 상부상조를 적자성으로 선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부상조는 진화의 기본이자 진화의 논리적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sup>81)</sup>

그의 무정부주의는, 가혹한 외부 환경과의 생존경쟁에서 적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부상조가 요구되는 데도, 국가가 그것의 실현을 저지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는 재화의 불평등 분배 체제인 동시에 소수의 특권 보유자가 다수의 정당한 자들을 억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회를 적대적 집단들로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런 속성을 상부상조의 전면적 실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국가는 자유평등사회 구현의 장애물로만 비추어졌다. 그러므로 국가를 제거해야 상부상조의 진화 윤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간이 곤궁과 좌취 그리고 강제적 복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의 무정부주의가 변용된 진화론에 의하여 보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석증(李石曾) 등 중국 무정부주의자들은, 크로포트킨 류의 진화론적 무정부주의를 수용하면서 반강권주

80) Wells, *art.cit.*, p.53. 혁슬리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자연 과정(cosmic process)과 윤리 과정(ethical process)로 분류했다. 자연 과정은 힘으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그리하여 자애(self-assertion)와 자족(self-satisfaction)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도덕적 권리가 부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반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도덕과 권리를 창출한 윤리 과정은 자애보다 자제(self-restraint)가, 그리고 경쟁보다 존경과 상부상조가 지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윤리적 최선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 과정을 위해서 자연 과정을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서는 Huxley, *op.cit.*, pp.75-77, 81-85.

81) P. A. Kropotkin, *Mutual Aid : A Factor of Evolution* (London : Allen Lane, 1972). 자연은 협력적이고 조화적인 존재라는 크로포트킨의 주장은, 무제한의 경쟁과 부적자의 제거가 벌어진다는 다윈 및 스펜서의 견해와 상반된다. Greta Jones, *Social Darwinism in English Thought* (Sussex : Harvester Press, 1980), P.77. 그렇다고 그가 적자생존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적자생존이 상부상조와 경쟁하되 적자생존은 단결이 잘된 봉에게만 주어지며,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보면 상부상조가 적자생존보다 더 강하고 진보적이어서 전자가 진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의, 반엘리트주의, 폭력주의를 그 방법론적 도구로 이용했다. 신채호는 이들의 무정부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를 부분적으로 포기했던 바, 「조선혁명선언」(1923)은 무정부주의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sup>82)</sup>

## 6. 반창조설, 반목적론

다윈의 이론은 진화론의 전통에서 신학이론-창조설-홍수설-을 제거하고 과학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도 기여했다. 다양한 혼란이 있었지만 진화론은 다윈이 발표한지 채 20년도 안되어 창조설을 대치했고, 인간도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의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인류를 자연의 외부 아닌 내부에 위치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진화론은 기독교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이에 근거한 정치사상을 파괴해 들어갔다.<sup>83)</sup> 다윈에 의하면 진화는 초자연적 힘이 개입하지 않는 자연 과정으로서 유기체의 환경에의 적용은 신의 설리가 아닌, 자연선택에 의하여 우연히 창출된 유리한 변이의 결과이다. 그가 진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즉 초자연적 힘을 질서정연한 자연의 인과관계로 그리고 불가지한 현상을 가지의 현상으로 대치함으로써 기독교에 타격을 가하긴 했지만, 그 자신이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직접 도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신에 관하여 모호한 태도를 견지했을 뿐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은 신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는 기독교의 <창조설>을 결과적으로 부인한 것이지만, 정작 그 자신은 빅토리아 시대의 보편적 사조를 따라 신의 존재 여부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불가지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스펜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론을 사회와 관련짓는 경우에도 신의 존재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그와 스펜서는 <불가지론>(agnosticism)의 방파로 자신들의 이론을 보호하는 한편, 신에 호소하지도 않고 신을 부정하지도 않음으로써 자신의 이론이 의미하는 바와 관계없이 과학과 종교의 조화 여지를 남겨 두었다.<sup>84)</sup> 그럼에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다윈이 기독교 신앙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진화론을 수용한다는 것은 철저한 정신혁명이나 세계관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 결과 진화론적 사고가 야기한 정신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해야 하는 것이 19 세기 말-20 세기 초 기독교의 과제가 되었다.<sup>85)</sup>

다윈의 이론은 근대 사상이 <목적론>에서 벗어나 <기계론>으로 향하는 경향을 강화하기도 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 과학혁명 아래 꾸준히 확대되어 오긴 했지만, 「종의 기원」이 18 세기 이후 유럽 사회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 만연된 목적론적 진보 관념에 큰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다윈은, 자연이 잔혹성으로 상징되는 존재이며 진화 과정에는 목적, 정의, 자비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한편, 진화 과정에서의 진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보에 대한 확신을 동요시켰다. 그렇다고 목적론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어서, 이후의 형이상학적

82) 신연재, 앞의 학위논문, pp.181-187 참조.

83) 그러나 19 세기 후반 기독교도들이 지적 혼란과 정신적 갈등을 겪기는 했어도 진화론만이 그 전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 한 사람들 모두가 진화론 또는 사회진화론만을 새로운 의지처로 삼지는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매우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Moore, *op.cit.*, p.102.

84) Merz, *op.cit.*, Vol.3, pp.511-517. 다윈은 신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짓, 즉 신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푸시의 비판은 이 점에서 되새겨 볼만하다. 그러나 역으로 기독교가 고수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에 일조한 부수효과도 있었다. James R. Pusey, *China and Charles Darwin*(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83), pp.12-14.

85)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사상가들조차도 기독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화론으로 인한 신념의 위기는 기존의 사상 및 신념 체계내에서 해소될 수 있었다. Moore, *op.cit.*, pp.110-122.

진화론에도 다수의 목적론-쇼펜하우어, 니체, 베르그송-이 여전히 위세를 떨쳤다. 다윈의 영향을 쫓아 이후의 사회과학은 진화론적 시각을 폭넓게 수용한다. 다윈의 방법론이 사회과학이 과학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고도 각종 현상의 기원, 형성, 성장 과정을 역사적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능주의적 사회학-굼플로비츠, 라첸호퍼, 뒤르켕-이, 문화사-람프레히트(Lamprecht), 뮐러(Muller), 라이어(Lyer)-가, 인류학이, 그리고 미국의 실용주의와 근대화이론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영향을 받았다.<sup>86)</sup>

## VI. 맷는말

근대의 진화론이 부분적으로 고대 및 중세의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았다 하더라도 양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대의 진화론은 다윈의 이론에 저변을 제공했고, 자연선택을 핵심으로 하는 다윈의 진화론은 정치사회사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과연 자연선택은 다윈적 진화론의 핵심인가? 따라서 자연선택 원리는 인간 행위의 지도 원리가 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다윈의 진화론은 정치사회사상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비판은 이런 의문에 축을 두고 있다. 심지어는 다윈의 이론이 과학적 방법론을 결여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바, 그것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다의적으로 수용된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한다.<sup>87)</sup> 그런데 진화론에 대한 이해나 비판은 대부분 다윈의 이론 자체가 아닌, 거기에 담긴 합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는, 다윈의 자신의 이론에 내포된 사상적 합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도 있다.<sup>88)</sup> 이 결과 널리 수용된 것은 진화에 대한 확신일 뿐 진화를 설명하는 기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의 변천에 따라 각종 형태의 사회진화론이 퇴조한 반면, 현대 과학의 발전이 진화론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다윈이 사회에 관한 선형적 인식을 진화 연구에 개입시켜 객관적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sup>89)</sup> 그러한 비판은, 다윈이 귀납적 연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연역을 귀납으로 환치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선형적 사회관에 맞추어 가설을 설정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론을 정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다윈 류의 진화론이 본래 사회과학적 진화론인가, 아니면 본래 순수한 생물학적 진화론이지만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부 사상적 합의를 담고있는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과 연결된다. 이중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윈 류의 진화론이 본래 사회진화론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즉 그것과 사회진화론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진화론을 포함한 19세기의 사상들이 다양한 사회과학적 합의를 내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지적 종합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펜서의 개인주의, 해켈의 민족주의, 키드와 피어슨의 사회체국주의, 히틀러의 나치즘,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 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만

86) 진화론이 사회학, 인류학, 문화사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Wagar, *Good Tidings*, pp.38-41. 그리고 근대화이론, 정치발전론, 비교정치론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Mazrui, *art. cit.* 참조.

87) Hull, *art.cit.*, pp.393-394.

88) Carl Degler, *In Search of a Human Nature : The Decline and Revival of Darwinism in American Social Thought*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91) 참조.

89) 그 예로 Harris, *op.cit.*, pp. 519-533

큼 진화론이 정치 현상에 신축성있게 적용되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다윈은 사회진화론자라는 등식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